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진리가 희석돼 가는 이 시대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순수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a, 16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7년 12월 9일 (토) 제 1661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위기는 개혁과 갱신으로 극복할 수 있다.

미 언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후 더욱 불거지는 '복음주의 위기' 논란과 대안 제시

미국의 복음주의는 과연 위기에 처해 있는가?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후로, 복음주의 (evangelicalism), 복음주의자 (evangelical)라는 보편적 개념을 극단적 우익 또는 정치적 세력 같은 막바지로 몰아왔다고 보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바로 변영의 복음을 강조하는 목회자들이나 신앙과 정치를 동일한 맥락에서 보는 복음주의 일각의 목회자들이 대거, 트럼프 선거 유세와 당선에 함께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침례교를 포함한 주류교단들의 교세는 갈수록 하락하는 반면, 신사도계열인 '인디펜던트 카리스마틱 네트워크 (INC)' 계열 교회들은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산맥 신학'의 정점인 정치계에 바로 펜스 부통령이나 디보스 교육부장관이 있어,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설파한다.

여기에 남침례교 목사이자 아일리프 신학교 (Iliff School of Theology) 기독교 윤리학 교수인 미구엘 달 라 토레 (Miguel De La Torre)는 복음주의의 정치 참여에 따른 위기론 대두에 결정적인 한방을 먹였다. 그는 최근 뱀티스트 뉴스 글로벌 (Baptist News Global)에 "미국 기독교의 죽음 (The Death of Christianity in the U.S.)"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그리고 그는 첫 문장을 "교회는 복음주의자들 손에 죽었다 (Christianity has died in the hands of Evangelicals)"고 시작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복음주의의 진영 안에서 대두되고 있고, 복음주의의 미래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 지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미구엘 달 라 토레는 복음주의는 더 이상 보다 나은 인류를 만들어가려는 정의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복음주의자들은 사랑, 평화, 우애 등의 복음적 가치를 매장시키고 그들의 돈과 권력을 위해 영혼을 사기꾼들에게 팔아버렸다고 비판한다. 달 라 토레는 파우스트의 거래 (Faustian Bargain)라고 칭한다.

이는 출세와 명예를 위해 양심과 도덕을 파는 지식인들을 비꼬는 말이다. 엘라베마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에 오른 로이 무어 (Roy Moore)를 두둔하는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들을 보면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치 않다고 달 라 토레는 주장한다.

무어는 엘라베마 주 공화당 연방 상원 후보이며, 주 대법원장을 두 번이나 지냈다. 그는 연방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며 직무정지가 되기도 했고, 법원 앞에 심계명 비석을 세워서 유명세를 탄 근본주의 기독교인이다. 그가 32살 때 14살 난 여학생을 유혹해 30분을 운전해서 집으로 데려간 뒤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10대 미성년자들에게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이 무어의 경우로 드러난 일부 복음주의자들의 악한 모습은 성폭행, 강간범, 거짓말을 늘어놓는 지도자들에 대한 옹호의 행태로 드러났다. 살로즈빌 백인우월주의 폭력사태에도 그들은 침묵하거나 오히려 인종차별주의자들에게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평화를 외치며 시위하는



트럼프대통령 취임식에서 참석한 목사들이 기도하고 있다.

사람들을, 증오로 무장한 자들과 같은 무리로 치부해 버렸다.

그렇다면 이처럼 복음주의 진영의 일각에서는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문제가 있는 지도자를 두둔하고 지지하는가?

이에 대한 적절한 해답은 캐나다 크랜필 대학 종교연구 석좌교수로 있는 존 G 스텝 하우스 J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그는 중립적 성향에 있는 RNS (Religion News

Service)에 기고한 글 (Why it's not just nominal evangelicals supporting Donald Trump)을 통해, 복음주의의 주류가 어떻게 해서 정치적 노선이라는 기차에 동승했는지를 잘 설명해준다. 그에 따르면, 미국 정치 역사에서 낙태 문제야말로 복음주의자들은 하나로 묶는 유일한 연대였다.

(3면으로 계속)



NAPARC 제42차 모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NAPARC 신임의장에 박성일 목사

제42차 모임, 내년모임은 KAPC 주관으로 개최

북미 주창로 교 개혁 교단 협의회 (NAPARC) 제 43차 모임이 지난 11월 4일 미시간 주 Grand Rapids 시 퓨리탄 리폼드 (Puritan Reformed) 신학교에서 회집됐다. 의장인 Bartel Elshout 목사의 사회로 개회예배를 인도했다.

NAPARC 모임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유일한 구원자요,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며, 또 이 모임은 장로교와 개혁 교단으로서,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부분적으로 오류가 없음을 믿는다고 완전히 약속한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벨직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을 따른다고 약속한다."

NAPARC 모임은 임원선거로 시작되면 모임에서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교단에서 박성일 (Steve Park) 목사가 의장으로 선임됐다.

부의장에는 고신측 데이비드 김 목사가 됐고, 서기는 Ralph Pontier 목사와 회계에 Maynard Koerner 목사가 선임됐다.

의장과 부의장은 알파벳순으로 13개 교단이 돌아가면서 맡게 된다. 부의장은 다음해에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관하는 교단이 된다.

화요일 모임과 수요일 모임은 대부분



신임의장 박성일 목사

각 교단의 상황을 보고 하며, 보고한 교단에 질문도 한다. 또 보고한 교단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14일 저녁 시간에는 주관 교단인 Heritage Reformed Congregation 교단 Mark Kelderman 목사가 계시록 1장을 본문으로 은혜 받는 경건회를 가졌다.

15일과 16일 오전에는 다음의 제목으로 각 교단의 의견을 들었다.

△NAPARC 서로의 교단이 유기적 연합체로서 중요성은 무엇인가? △북미 주에서 특정한 윤리와 언어를 사용하는 교단이 NAPARC에서 합해될 필요가 있는가?

15일 저녁 수요 예배는 Joel Beeke 목사가 "가정예배회복"에 대한 주제로 영적인 감동의 말씀을 전했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ATS 정회원
석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월드미션대학교
박사	목회학과 (D.Min), 교회음악학사 (DCM-온캠퍼스)	온라인 프로그램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2면

시론
은희곤 목사



5면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7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8면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14면

선교 논란
강성철 선교사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대학졸업장, 더 이상 '풍요'의 티켓 아니다!

뉴스위크, 전미경제연구소 최근 보고서 내용 보도

대학을 나온 미국인이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그러나 새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를 설계하려는 많은 미국 젊은이에게 최선의 전략은 대학 졸업장을 따는 것이 아닐 수 있다.

매사추세츠 주 케임브리지 소재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최신 보고서(Vocational Education, Manufacturing, and Income Distribution: International Evidence and Case

Studies)는 일부 미국인의 경우 4년제 대학보다 직업학교를 다니는 것이 더 낫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구자 조슈아 아이젠만, 요틴 진자라크, 남응고, 일란 노이는 미국과 독일의 교육 시스템 비교에 초점을 맞췄다. 그들은 특히 독일에서 널리 시행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주목했다(Vocational Education May Be Better Strategy Than College For Many Americans: Study).

NBER 보고서의 결론은 '더 나은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대학 교육의 확대보다 저소득계층의 생활수준 향상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 분포의 낮은 쪽에선 직업훈련이 4년제 대학 교육보다 더 효과적으로 실직을 막아주고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서 작성자들은 강조했다.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에 더 많은 학생을 보내는 것은 '워킹푸어(working poor,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으로 근로빈곤층이라고 부른다)'의 실질소



에 선택을 바꿀 기회도 주어진다. 미국 시스템은 4년제 대학 프로그램을 이상적으로 내세우지만 독일은 기술직에 관심이 더 많은 학생에게 그 길을 추구하도록 장려한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독일에선 중학생(7학년)이 되면 일반 고등학교의 길을 선택한 학생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지 확인하고 학업 적응에 힘들어 하는 학생이 직업훈련 프로그램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독일은 기술준비 프로그램도 잘 갖추고 있다.

독일의 소득 불평등 수준도

미국인 47% "4년제 대학이 비용만큼 실질적이지 않다"고 생각 효과적 직업교육 증대가 저소득계층 생활수준 향상에 더 기여

득 감소를 해결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 수 있다."

이 보고서는 태국과 베트남의 상황도 비교했지만 주로 독일과 미국의 차이점에 주안점을 뒀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독일도 제조 부문에서 일자리 감소를 겪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제조 부문은 2008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를 훨씬 잘 극복할 수 있었다고 NBER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로, 실업난에도 불구하고 독일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기침체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근로자의 생산성도 높아졌다. 한편 미국의 제조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진적으로 낮아졌다. 현재 미국의 그 비율은 12%로 독일의 절반 수준이다.

기술 격차도 이런 차이에 기여한다. 그러나 또 다른 주요 변수는 근로자의 학력 수준이다. 독일의 직업학교 등록률은 미국보다 15% 높은 반면 4년제 대학 등록률은 17% 낮다. 독일의 실업률은 3.6%로 미국의 4.2%보다 낮다.

미국인에게 큰 재정 부담 중 하나가 학자금 부채다. 미상환된 학자금 부채가 현재 1조 4000억 달러에 이른다. 미국의 교육비용은 독일을 포함해 비교 가능한 여러 나라보다 훨씬 높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미국에서 4년제 대학을 다니는데 드는 비용이 "기대되는 구직 가능성이나 대학 교육에 연계된 소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제조 부문에 종사하는 미국인 중 상당수가 학사학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제조 부문의 일자리를 얻는 데는 별로 필요 없는 학위다. 그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직업학교를 다니면 학생의 부채가 줄어들고 제조 부문의 일자리를 얻는 데 더 유리하다. 가성비가 높다는 뜻이다.

NBER 보고서의 결론은 미국의 여론 추세와 일치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47%는 4년제 대학이 비용만

한 값어치를 못한다고 생각한 다. "대부분 구체적인 직업 기술을 익히지 못하고 부채만 잔뜩 안고 졸업하기 때문"이라고 NBER 보고서 작성자들은 설명했다. 18-34세 중 39%만이 4년제 대학이 다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미국에선 4년제 대학 교육이 강조된다. 게다가 대학 진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선택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독일에선 학생이 10세가 되면 일반 고등학교를 갈지, 직업학교를 갈지, 그 중간을 선택할지 결정한다. 물론 나중

미국보다 훨씬 낮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독일은 지니계수(소득분배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기준으로 낮을수록 불평등이 적다)가 0.27에 불과하다. 그에 비해 미국의 지니계수는 0.45로 매우 높다. 자부티와 페루의 수준과 비슷하며 중국·러시아보다도 높다. 미국의 소득·부의 불평등이 심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그러나 NBER 보고서 작성자들은 제조 부문이 건강해지면 그 격차를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3면으로 계속)



시론

감사도 순종이어라!



은희곤 목사
(잠사랑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꽤나 자극적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서 차가 폐차가 될 정도인데 그 가운데서 머리털 하나 안다쳤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누구나가 다 하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자동차 사고 안나고 하루하루 일상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데는 인색합니다. 지난 11월은 감사의 달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일상에서의 감사를 더 정밀하게 찾아내어 감사해야 합니다.

인체는 우주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평균 체중을 지닌 성인이라면 하루 동안 다음과 같은 '인체활동'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성인의 심장은 하루에 10만3천6백89번을 뛰고, 피는 하루에 2억6천8백80만㎤를 돕니다. 하루에 2만3천40번의 숨을 쉬고, 7백50개의 근육을 빠르게 혹은 천천히 움직이며, 뇌세포는 7백만개가 움직입니다. 내가 무슨 수고를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단 하루에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나는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만드셔서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경이로운 섭리입니다. 일상에서의 감사입니다. 새벽제단 쌓을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짐상에 누워 교회에 오지도 못하고 마음 못잡아 이리저리 유리하고 방황하지 않고, 스스로 예배 드리러 올수 있는 건강, 문제 안고 기도 제복 붙들고 씨름하러 교회에 나와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거,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매일 생령주시는 것도, 건강한 것도, 매일 출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도, 매일 못마땅해 하면서 투닥거리지만 남편이 있다는 것, 아내가 있다는 것, 하다못해 밥을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가고 싶은 곳 자유롭게 갈수 있다는 것도,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조차도, 매일 매일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에서의 감사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감사의 현미경으로 나의 일상을 들여다보고, 나의 일상에서 나와 자녀들의 인생 곳곳을 세밀하게 만져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정밀하게 많이 찾아내 큰 감사했기 바랍니다.

일차원적인 사람은 모든 일들이 행동할 때 잘나갈 때, 평안할 때만 감사를 합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벌어들여 자녀들이 숙을 써먹지 않고 온 식구들이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척척 잘되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길이 항상 순탄하거나 형통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까. 언제나 고요한 바다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광풍이 불어 닥칩니다. 앞이 안보일 정도로 캄캄한 암흑 속에 갇혀 있기도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 안에서 조차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미국 미시간 주에는 '로버트 맥메스'가 세운 '실례 박물관'이 있습니다. 입구에는 토마스 에디슨의 글이 비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실례한 것이 아니다. 단지 전구가 켜지지 않는 9,999가지 이유를 알게 됐을 따름이다." 그에게 9,999번의 실패는 10,000번째 전구에 불이 들어오기까지 불이 들어오지 않는 9,999가지 이유를 알게 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들의 인생에 9,999번의 실패가 있더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10,000번째의 성공을 향해가는 계단 하나를 더 올라갔을 뿐임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도 식물이 없고, 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합3:17-19),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무화과나무도 무성케 하시고 감람나무도 소출이 가득하게 하시고, 밭에도 식물이 풍성케 하시고, 우리에게 양도, 외양간에도 송아지가 가득 차게 회복시키실 줄 믿고, "없어도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드리는 일차원적인 당연한 감사뿐만 아니라, 고통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만남 안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집에서 남편이 부인이 해주는 밥 먹을 때 시큰둥하게 먹고 끼적끼적 먹으면 해주는 사람 마음이 어떨겠습니까? 하루는 "맛이 왜 이래? 거 누구누구는 음식도 잘하더구만" 이러면 그동안 묵었던 속 이야기들이 이때다 싶어 다 튀어 나오고 한바탕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부인이 뭘 해주든 맛있다, 설혹 맛없더라도 훗날을 위해 "당신 점점 음식을 맛있게 하네" 뭘 해도 잘했다, 잘했다하면, 매일같이 식탁이 새로워지고 풍성해집니다. 식탁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점점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이 열립니다. 속에 있던 이야기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더 쌓여갑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원래 우리나라는 가족 공동체이고, 이 가족 공동체의 전통은 '밥상 공동체'입니다. 동그런 밥상 둘러 앉아 밥 먹으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우리 '한민족의 밥상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일상'에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만남' 속에서 감사하라. '찾아서' 감사하라!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살전5:18, In every thing, in all circumstances)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합니다. "감사도 순종"입니다.

pastor.eun@gmail.com

<p>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p> <p>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gmail.com</p>	<p>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 유원정</p> <p>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nycchpress@gmail.com</p>
<p>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p>	

담임목사 청빙 공고

시카고 한인교회는 PCA(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소속된 시카고 인근 Hoffman Estates 시에 위치한 교회로 창립 45주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반 행하는 교회"가 되고자 힘써온 교회입니다. 지난 20년을 섬기신 3대 담임 목사가님 이 북한선교에 전념하기 위하여 사임(조기은퇴)함에 따라 차세대 이민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실 4대 담임 목사를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자격 요건

-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
- 목회경력(Full Time)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
- 한국어와 영어 설교가 가능하신분
- 미국 PCA 교단에 소속되어 있거나, 가입이 가능하신 분
-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실수 있는분

2. 제출 서류

- 본교회 양식 지원서(kcclove.org에서 download)
- 목회 계획서(시카고 한인교회 담임목사로서의 비전과 계획)
- 목사 안수 증명서 및 최종 졸업(학위) 증명서
- 추천서(2명 이상)
- 자기 소개서(신앙고백, 목회 경험, 성장 배경, 가족소개, 소명 - letter size 2장 이내)
- 년 이내의 한국어 설교(2편) 및 영어 설교(1편, optional) 동영상

3. 제출 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

- Email: kcc.pulpit.app@gmail.com (PDF로 보냄)
- 주소: Korean Church of Chicago, 1500 W. Algonquin Rd, Hoffman Estates, IL 60192, USA Attn: 담임 목사 청빙 위원회

4. 제출 기한

- 2018년 1월 31 일까지(당일 소인까지 유효함)

5.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1차에서 선정된 분은 개별 통지하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는 시카고 한인교회 청빙위원회로 메일해 주시면 됩니다.
Email: kcc.pulpit.app@gmail.com

시카고한인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본교회는 창립 33년 되는 LA 소재 교회로 투철한 소명과 이만목회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갈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부 교역자 청빙

- 1. 부 목사님 (Full Time)**
-정규 신학 대학원 이상 졸업자로서 목사 안수 받으신분
-40세 미만의 기혼자
-한국어의 영어 소통이 원활 하신분
- 2. Youth Group 종교동부 전도사님 (Part Time)**
-정규 신학 대학원 졸업자나 재학중인 분
-영어 설교 가능하고 이중 언어 가능하신분
-채류 신분이 합법적인 분
- 3. 찬양리더 (Part Time)**
-기타나 키보드 연주하면서 은혜로 찬양 인도 할 수 있는 분
- 4. 한글학교 교사(Part Time)**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 모국어를 가르치는 사명감이 있는 분으로 한국문화원이나 기타기관에서 교사양육 프로그램 이수하신분 환영
-이중 언어가 가능하신 분
-주일 오후 1:30 - 3:30 까지

제출 서류

- 이력서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 사진 및 가족 사진)
- 자기 소개서 (신앙 고백 및 목회 소명)

제출 기한 및 방법

- 제출 서류 마감: 12/20/2017 까지
- 제출 방법: 모든 서류는 메일로 보낼 것
- 이메일: lalkyoon@gmail.com

사 랑 한 인 교 회

2801 W. Temple St. LA, CA,90026
담임 목사 하 재 식

위기는 개혁과 갱신으로 극복할 수 있다.

(1면에서 계속)
선거에 나선 두 후보가 있다. A후보는 신앙적으로 검증된 신앙의 사람이다. 그런데 낙태에는 애매모호하다. 그러나 B후보는 신앙이 있어 보이고 낙태에는 한사코 반대한다. 그러면 B후보에게 복음주의자들의 표가 결집된다. 그만큼 복음주의자들에게 중요한 쟁점은 개인의 경건과 도덕보다 앞선다.

스탁하우스 Jr. 교수는, 또한, 어떻게 해서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게 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설명한다. 첫 번째로, 근본주의자들이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재현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1920년대 이후 특히 미국의 경제적 변명이 활발했던 1960년 이후, 복음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조직들을 만들게 된다. 성경 클럽에서부터 모티사이클협회까지 그리고 정치적 영역에서도 조직들이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치적 힘을 빌어 목적들을 달성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이미 형성된 조직적 힘으로, 각자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성취하려 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그러나 이러한 복음주의자들의 순진한 의도는

실제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인적 경건의 영역을 넘어선 쟁점들 즉 구직 격정, 세금 문제, 이민 문제 그리고 안보,



앞에서 월드비전이나 국제정의미션과 같은 NGO들은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었다. 그래서 주 정부나 연방 정부에게 다급하게 의지하게 되었고, 너무 급작스럽게 선거들을 맞게 되다보니 이에 적응할 어떠한 성경적 가르침에 대한 재고 없이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복음주의자들은 지미 카터 대신 로널드 레이건(이혼 경력에 교회에도 자주 가지 않았던 후보)을 지지하게 되었고,

17세의 나이로 혼전 임신한 딸을 가진 사라 페일린 지지에 이어 결국에는 도널드 트럼프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주의가 미국 역사지평 특히 정치계

a series on the meaning and place of a historic movement). CT 편집장 마크 갈리는 솔직담백하게 복음주의가 노선을 잃고 방황한 적도 있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다가올 하나님 나

에 끼쳐온 영향이 거대하다는 사실이다. 정책과 문화 형성의 기초에 늘 반영되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대선 후보들마다 복음주의권을 의식해 표발 일구기의 대상으로 삼는다. 대선 캠페인 진영이나 투표 출구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결론으로, 크리스치니티 투데이(CT)는 앞으로 연계를 통해 이러한 혼란들을 극복하기 위해 복음주의의 독특성을 보도하겠다고 약속했다 (Evangelical Distinctives in the 21st Century: The first in

라를 알리는 차원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변형시켰다고 말한다. 물론 정치와 담합하기도 했지만 이것이 복음주의의 전부가 아니었기에 개혁과 갱신을 통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처럼, 겸허하게 세상을 섬기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한다. 아직도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선교사로 목회자로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로 세상을 섬기고 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목회와 성경공부(상)

한국교회 성경공부운동은 교회 밖의 성경공부와 교회 안의 성경공부로 대별할 수 있다. 교회 밖의 성경공부운동은 선교단체나 학생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교회 안의 성경공부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무교회주의 운동가들의 성경공부, 대학생선교회, 네비게이토선교회,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 예수전도단, 직장선교회, 기독교실업인회 등 교회 밖의 성경공부가 확산되는 추세였다. 그러나 교회 안의 성경공부는 여러 가지 한계를 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성경공부운동을 교회 안에서 활성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필자의 고민이었고 최대 관심사였다. 그것은 말씀과 성령, 지성과 영성을 아우르는 균형 목회를 지향하는 필자의 목회철학 때문이기도 했고, 교회는 성경공부를 통해 건강해졌고 성장했다는 역사적 고찰 때문이었다.

성경공부의 역사

성경공부는 유대 공동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가정 중심의 비형식적 성경공부로 시작된 저들의 교육은 회당의 출현으로 발전되었고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전도서, 잠언 등을 단편적이긴 하지만 교재로 삼고 가르쳤다. 회당에서의 성경공부는 6세에서 10세 사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학교, 10세 이상의 소년과 장년은 중등학교 그리고 최고학부인 전문학교로 나누어 가르쳤다. 회당예배는 기도과 성경읽기 그리고 성경강해가 포함되었고, 질의문답과 요리문답식을 병행했다. 이러한 유대 공동체의 뿌리에서 기독교가 발생했고, 예수와 그의 사도들 모두 성경의 사람들이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의 복음 전파 사역이 90회 정도 나온다. 그중 60회는 가르치는 일이었고 30회 정도는 설교였다. 그리고 90회 모두 성경(구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었고 접근이었다.

초대 기독교의 터를 굳게 하고 발전시킨 힘은 바로 성경공부였다. 바울도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가르쳤다. 예를 들면 베뢰아에서(행17:11), 두란노 서원에서(행19:9-10), 로마에서도(행28:23-31) 성경을 가르쳤다. 이러한 성경공부 전통은 고대기독교로 전승되어 세례준비학교와 문답학교가 세워졌고, 훗날 감독학교와 성당학교로 발전했다.

문제는 중세였다. 흔히 중세 천년을 암흑기라 부른다. 왜 암흑기였는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 교권이 교회를 짓누른 시대였기 때문이다.

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는가? 그것은 성경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교권과 제도가 낙진이 되어 성경을 덮었고, 성직자들만을 위한 증빙전일 뿐 교인들은 성경의 존재마저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성경을 박물관 골동품, 소장품 정도로 취급했다.

성경공부의 빛이 꺼진 중세교회, 그 어둠을 헤치고 성경이 빛을 발하도록 나선 사람이 마틴 루터였다. 성경공부는 종교개혁의 원동력이었고 구심점이었다. 수많은 개혁자들, 츠빙글리, 불링거, 칼빈, 부처 등 모두 성경의 사람들이었다. 그 후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난 경건주의운동 역시 그 뿌리와 동기는 성경공부에서 비롯되었고, 모라비아운동의 천체도르프 역시 성경공부의 사람이었다. 성경공부운동은 영국으로 건너가 꽃을 피웠고, 미국에서도 교회다움의 교회를 세우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영국의 경우 산업혁명의 회오리에 밀려 요동치고 있었고 미국은 합리주의와 도덕적 타락이 맞물려 비망으로 치닫고 있었다. 거기다 남북전쟁 이후 사회적 혼란은 신앙적 각성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었다.

영국 대각성운동을 견인한 사람들은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그리고 헛필드였다. 그들은 대학 시절 홀리클럽을 중심으로 기도생활과 성경공부에 주력한 성경의 사람들이었다. 미국의 경우 웨슬리 형제와 함께했던 헛필드, 피니, 무디 등 모두 성경공부의 무리들이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경우다.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는 영국의 대각성운동의 열매인 런던선교회 파송선교사였고, 만주에서 서상훈과 함께 한글로 성경을 번역한 맥킨타이어나 존 로스는 자유연합교회 선교회 소속이었다. 그리고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는 무디 말년에 심혈을 기울인 학생지원 선교단체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서 성경공부의 열매들이었다.

iamcspark@hanmail.net

NAPARC 신임의장에 박성일 목사

(1면에서 계속)
NAPARC은 13개 회원교단으로 구성됐고, 약 3600개의 지교회와 있으며, 세례교인 수는 총 584,000명으로 집계됐다. 각 회원교단에서 매년 4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할 수 있고, 서로 각 교단에 다방면으로 권면과 조언을 해주며, 믿음과 실천에 있어서 교회의 유기적 연합을 위해 필요한 것과 바람직한 면들을

간직해 나가도록 한다. NAPARC에 속한 교단은 다음과 같다. Associat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ARPC), The Canadian Reformed Church(CanRC), The Eglise Reformee Du Quebec(ERQ), The Free Reformed Churches of North America(FRCNA), the Heritage Reformed

Congregations(HRC),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KAPC),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Kosin), the Orthodox Presbyterian Church(OPC),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PCA), the Presbyterian Reformed Church(PresRC), the Reformed Church in the United States(RCUS), th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of North

America(RPCNA), and the United Reformed Churches in North America(URCNA). Representatives of the Bible Presbyterian Church(BPC) and the Protestant Reformed Churches in America(PRCA) attended as invited observers. 다음 협의회 총회는 미주한인 예수교장로회 주관으로 2018년 11월 13-15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다.

(기사제공: NAPARC)

대학졸업장, 더 이상 '똥요' 의 티켓 아니다!

(2면에서 계속)
NBER 보고서의 또 다른 주요 결론은 미국의 제조 부문 일자리 감소가 독일보다 '사회적 영향'이 더 큰 이유는 부실한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이다. 의료 보 조금 지급과 저렴한 교육 같은 더 활발한 공공 프로그램을 가진 독일이 실업자에게 더 관대하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기대수명이 처음으로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상황은 독일보다는 소련 붕괴 후 러시아에서 나타난 산업공동화 현상과 더 닮았

다." 보고서는 흥미로운 정치적 분석으로 마무리됐다. 일반적으로 말해 제조 부문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의료와 교육 비용이 늘어나면 다른 뭔가를 포기해야 한다. "미국 같은 나라가 적절한 직업교육과 재훈련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공핍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정치적 불안이나 중산층의 붕괴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 증대에 직면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불안이란 영국이 유럽연



합(EU) 탈퇴안을 국민투표에서 통과시킨 것이나 지난해 미국 대선 등 최근 발생한 예상외의

투표나 선거 결과 같은 이례적인 상황을 가리킨다.

교회 휴대용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현수막 | 천막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프로모션 상품
디자인서비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카라반 캐노피는 18년의 대형 프린팅 전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등 다양한 디자인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플래그

미디어벽

백걸이 포스터

X-배너거치대

롤업배너

현수막

추수감사절 예배

성탄 축하예배

14600 Alondra Boulevar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714.367.3046 (한국어) www.caravancanopy.com



목장일기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지만...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청소년 시절에 폐결핵을 치료하기 위해서 농촌에서 2년간 요양 생활을 할 때였다. 농촌의 풍경이 곱으로 보기에 풍경화처럼 아름다워 보인다. 그러나 정작 그 그림 속에 들어가 보니 실제로는 가는 곳마다 역겨운 냄새로 가득했다. 우선 들이나 밭에 가면 고약 퇴비와 인분 냄새로 코를 막아야 했

다. 집에는 마당 한 칸에 돼지우리의 구린내가 진동을 했고 뒷 칸에는 염소와 소들의 배설물 악취로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다. 게다가 온종일 닭들은 날카로운 두 발로 거뜨더미들을 해치면서 먼지와 고약한 냄새들을 풍기며 진동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도저히 적응하기가 힘들었다. 역하게 풍기는 냄새

들이 싫어서 내 방에서 문을 꼭 닫고 나오지 않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사촌 형수께서 급하게 달려와 도움을 청했다. 따라가 보니 거대한 어미 돼지가 구렁텅이 속에 가로 누워 숨을 헐떡거리며 산고의 신음을 하고 있었다. 형수는 어미 돼지의 배를 쓰다듬으면서 한 마리

한 마리씩 새끼 돼지들을 받아냈다. 난 땀줄을 질렀고 수건으로 닦아주었다. 이렇게 받아낸 새끼 돼지들이 자그마치 열한마리나 되었다. 얼마나 부드럽고 귀엽고 예쁜 단자... 눈도 겨우 뜯 녀석들이 꿀꿀거리면서 뒤뚱뒤뚱 걸어 다니는 모습은 환상적이었다. 아기 돼지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후 정신을 차려보니 내 온몸은 오물 범벅이 되었지만 이상하게 그 냄새들이 싫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렇게도 많은 새끼들을 쏟아준 어미돼지가 믿음직해 보였고 가난한 농가에 큰 몫을 보탤다는 대견함에 사랑스럽게 보였다. 닭똥 냄새가 진동하는 닭장에서 꼬꼬대 울어대기는 암탉의 동지에는 매일 따뜻한 달걀들을 쏟아 놓았고, 말쑥꾸러기 염소도 새끼를 낳고, 조용한 토끼도 새끼를 늘리고... 그래서 농가가 풍요롭게 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떠올랐던 성경말씀이 이 구절이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잠14:4). 이때 농가에서 체험한 살아있는 말씀이 내 인생과 사역에 이렇게도 큰 힘이 될 줄을 몰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한 것을 선호하고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은 좋아하지 않는다. 물론 새로운 일을 하려면 우선 많은 변화를 감수해야 한다. 앞으로 나가려면 맞바람을 피할 수 없다. 그 맞바람이 낳고, 조용한 토끼도 새끼를 늘리고... 그래서 농가가 풍요롭게 되어

밤을 밝히며 책 읽는 자가 앞서 간다. 최고의 등반가는 동네 뒷산을 오르지 않는다. 겁쟁이들은 언제나 핑계가 많다.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하면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게으른 농부들은 비가 올 것 같아서 파종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농부는 비를 맞고라도 씨를 뿌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라도 반드시 거기에는 반대세력이 있고 방해꾼들이 있기 마련이다. 반대가 싫고 방해꾼들이 무서우면 그냥 있으면 된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지내라. 그리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소로부터 얻는 유익은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jykim47@gmail.com

푸/른/초/장

한화영 목사

(미 트리니티신학대학 대학원장/남가주헬로교회 원로)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이 번제할 어린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모순이란 앞뒤가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는 반대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훌륭한 신앙은 가치의 지식과 경험과는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믿을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믿고 순종하여 모순을 극복하고 축복을 받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네 아들 네

아들인데 이제 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니 살인을 금하고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었다는 사람들까지 제생각과 이성에 맞는 말씀만 믿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모순 속에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참다운 신앙은 내 생각과 계산대로 안 되어도 믿는 것이요, 내 기도한 것과는 반대현상이 나타나도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순 속에서도 믿는 신앙입니다.

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울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연자 맺들은 천천히 돌지만 그러나 골고루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약속한 히틀러가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일본이 전쟁을 다 이긴 듯했지만, 결국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나타날 때가 반드시 있음을 믿고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뜻을 따라 꼭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분명히 응답이 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과 반대현상이 나타나도 끝까지 의심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면 돌이란 시험이 떡으로 변하고 독사 같은 시험이 좋은 생선이라는 축복으로 변하는 때가 옵니다.

- 2. 신앙생활과 모순
 - 신앙이 성장하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모순을 느낄 때 이를 잘 극복해야 합니다.
 - 2) 축복대신 손실이 올 때,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도리어 망하고 손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 3. 모순을 극복하는 신앙의 근거
 - 1)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모순을 극복하는 신앙

(창세기 22장 1-12절)

1. 훌륭한 신앙은 모순을 극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을 때는 인스턴트식품을 먹듯이 이 기도응답도 잘 받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즉각즉각 잘 받고 체험하지만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믿고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모순되는 일을 만나게 되고 내 이성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실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예수 믿어 봤자 소용없는 일이다"라고 하며 낙심하고 타락하지만 훌륭한 신앙의 사람은 모순된 일이 나타나도 더욱 굳세게 믿고 의지하면서 이를 극복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참으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청천 벽력같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사상 최대의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는 언약과 더불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창 하게 하겠다는 축복으로 받은 아들입니다. 더욱이 낳을 수 없을 때 100세가 되어 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큰 모순을 극복하고 순종하여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이해할 수 있는 것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믿을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을 때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욕이 훌륭한 것은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다 불타고 도적맞고 없어질 뿐 아니라 열자녀가 태풍에 집이 무너지면서 다 죽어 버렸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오래 믿

1) 악인이 의인보다 잘 될 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악한 일을 자행하는 사람은 잘 되고 그 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아 보려는 사람이 더 고생하고 못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럴까?"하고 신앙에 모순과 회의 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시편 37:1에 "행악하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험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믿고 회의에 빠져서 실망해선 안 됩니다(시37:5-). 우리의 좁은 인간의 생각과 기대에 어긋난다고 해서 모순을 느끼고 불신앙에 빠져선 안 되겠습니다. 심일조를 하고 복 받은 일을 했는데 손해가 올 때는 다음의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흔들려 보시는 때도 믿어야 합니다. 3) 기도 응답대신 반대 현상이 나타나면, 열이면 아홉 하나님의

2) 좋은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단을 위하여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주실 때가 있지만 결국은 좋은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해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모순을 직면해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훨씬 좋은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강사: 라흥채 목사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도서 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올해 2017년을 수놓았던 종교 개혁 500주년의 무수한 행사들과 말의 향연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측면이 많음을 본다. 많은 기관과 사람과 물질이 투입되었을 텐데, 교회의 본질적인 변화를 주도할만한 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듯해서다. 결코 성공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시대가 500년 전보다 더 약해진 측면도 있을 것이겠지만 교회는 여전히 혼돈의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며 복음 안에서 본질적인 변화와 개혁을 도모할만한 일들의 모멘텀을 생성하지 못했다는 평가 때문이다. 교회의 개혁을 통한 세상의 변혁을 드러낸 개혁자들의 피뿌린 헌신들을 온전히 구현하고 대체할 그 무엇인가를 찾지 못했다는 다수의 소견에 적극적인 동

호주의 힐송처치를 방문하기 위해서 여름휴가 전부를 사용한 이를 알고 있다. 그의 설명은 여행관광 겸 폭포수 아래에서 자신의 영혼을 씻음 같은 시원함을 경험하고 온다고 한다. 그러나 또 다른 이의 설명을 들어보면, 과연 그곳이 참된 교회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그곳에는 복음의 자유함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도 타투하고 동성애자로 보여지는 이상한 몸짓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관용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교회가 과연 저렇게 몸이 이상한 그림과 동성애자들을 편안하게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

나서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맡아 주셨던 것이다.

3년 공생애를 지나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는지 생각할 수 있다. 처음에는 열두제자에게 가르쳐주는 것만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 열두 사도를 통해서 온 세계를 가르치는 사역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교회에 가장 본질적인 것 하나는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낭비하라, 거룩한 낭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는 밤낮 주야를 거치지 말고 가르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선교신학자 쿨만은,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었다'고 말한다. 사람을 세우는 사역

선교보고를 하는 내용들을 보면 자신들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 선교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다. 그들은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들보다 더 열심을 내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보고를 했다. 일본과 비슷한 보고서가 올라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보면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가?

그 근본이유 중의 하나가 일본은 가르치기를 못해서 온전한 부흥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졌지만, 한국교회는 매일 같이 모여서 새벽기도부터 예배와 예배, 성경공부와 성경공부, 등등의 성경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행하는 일들 속에 부흥의 열매를 보았다는 것이다. 비록 세속화된 문화적 현상들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일본과는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죽었습니다. 그토록 나안 땅을 기대하며 백성들을 이끌고 40년간 수고해서 가나안 앞까지 왔는데 왜 이 중요한 순간에 그가 죽어야 했는지요? 또 왜 그의 무덤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지 못하게 했는지요? 영어성경 신명기 34장 6절은 하나님께서 그를 묻었다(He buried him in the valley)고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목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토랜스의 김혜하 장로

A: 좋은 질문입니다. 질문이 2가지입니다. 먼저 첫 질문에 대해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요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그는 40년간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앞 땅까지 오게 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가나안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될 자격이 가장 많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신명기 34장 27절을 보면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직접적인 이유로 모세는 신광야 가데스의 므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죽은 모세, 그 무덤 숭배할까 숨겨

물이 없어 불평하는 백성들을 보고 화가 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그의 손을 들어 반석을 두 번 찌므로 범죄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민20:11-12, 신32: 51).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실제로는 이제 쉬라는 하나님의 사명의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모세의 나이가 거의 120세입니다. 하나님이 40년이나 많은 일을 그에게 시키셨습니다. 고생 많이 했고 이제의 연로합니다. 은퇴하고 쉴 나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은 쟁과 쟁이 흐르는 좋은 곳이지만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족속 31명의 왕들과 싸워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무서운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7년이나 걸리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치가요 행정가인 모세보다 군인인 여호수아를 가나안 전투의 지도자로 삼은 것입니다. 모세는 그만하면 수고했으니 이제 쉬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의 사명이 다하였으므로 가나안 목전에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부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디에서 묻혔는지 알지 못했던 모세의 무덤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모세의 죽음에 정확히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는 120세가 되었어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을 정도로 건강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가 사명이 다하였으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6절을 보면 벳보울 맞은 편 모압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날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으니라 했습니다. 이름이 붙은 비석하나 없이 죽은 것입니다. 영어 성경대로 하나님이 그를 묻으신 것입니다. 그의 무덤이 어디인지 알면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숭배하여 우상화 할 수 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고 현화하며 각종 추모 행사를 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우대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직접 그의 시신을 묻으시고 무덤장소를 인간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간사 제자교회)



교회의 개혁, 세상의 변화 - 교회의 변화, 세상을 향한 표지

의를 표한다.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을 품는 것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지상교회의 불완전함에 대한 선지자적 연구를 따르는 것이다. 이에 동의하여, 또 하나의 언설을 끌어 담는 듯 하여도 한 가지 첨언해야 할 것은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개혁을 위한 가르침의 일을 주저함 없이 반복적으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르침이 부재한 교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의 복된 모습들은 타락이후에 상실되었다. 타락이후 죄를 향한 본성만이 특세하며 모든 것을 파괴적으로 몰아가게 되었다. 스스로의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고집하며 아무런 소망 없는 존재로 자신을 방임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한 죄인들이 주 예수 안에서 교회를 통해 회복이 되었지만, 여전히 가르침을 받아야 할 불완전한 존재로서 교회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주체가 되었다. 이를 회복할 길은 없는가? 교회의 온전한 교회됨을 지키며 세상의 변혁을 주도할만한 길은 무엇인가?

한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서 신앙생활을 도모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그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타락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감정의 뜨거운 찬양은 존재하여도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말씀이 없고 가르침이 없으니, 절망과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가 없음으로 여전히 타락의 변함없는 현상들만이 교회에 존재하는 것이다. 교회에 레즈비언도 오고 게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이 그룹을 만들어 파리를 틀고 자신들의 친교를 유지해 간다면 분명히 교회로서의 존재이유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교회의 가르침은 세상의 변화

온전한 교회됨은 교회 안에 죄의 본성을 거스를만한 가르침이 주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교회는 가르치는 사역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르치는 사역이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바다 위를 걸으셨고, 험한 파도가 칠 때 파도를 꾸짖으시면서 잠잠케 하셨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을 나

을 끊임없이 하셨다는 것이다. 사람을 세우는 게 뭐가? 가르치게 하기 위해 사람을 세우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다. 일본 교회는 0.05퍼센트 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교회가 많지 않다. 이런 교회가 일본 속에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믿는다고 한다. 그들은 거짓말을 아예 안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본교회 성도들은 보충수표다. 나는 어느 교회냐고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다 믿는다는 것이다. 크리스천들을 백프로 믿는 사회가 바로 일본사회라고 그렇게 말한다.

2차 대전 이후 일본은 굉장한 부흥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그때 7년 동안 일본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선교사들이 그렇게 보고 했다고 한다. 일본은 멀지 않아 선교할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될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런데 왜 일본이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거기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 북장로교 교단은 조선선교의 큰 일을 감당했다. 당시 그들이

비교할 수 없는 기독교적인 문화가 한국사회 곳곳에 배어있는 것을 보게 된다.

모이기를 힘쓰며 가르침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시대에 많은 성도들은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여념이 없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다. 집에서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우는데 더 기쁨이 가득 차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성도들에게 알게 함으로써 집에 있는 시간은 고작 잠자는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은 교회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다.

지금도 한국교회는 이처럼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는지 모른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라져 가는 것이 교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만 한다면 안 가르칠 주의 종이 없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정말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한다.

(13면으로 계속)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www.rptseast.org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문,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학과

대학부	신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회학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문의처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필리핀의 부족들



필리핀의 13개의 부족들의 통합 프로파일. 필리핀에 살고 있는 다양한 종족들의 문화는

유사한 점들이 많지만, 실제로 많은 소규모 언어집단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주로 루손(Luzon) 섬과 민다나오(Mindanao) 섬에 흩어져 있으며, 대부분이 부족을 이루어 생활하는 성향이 강하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현대문명과 동떨어져 있으며 아직도 생존중심적인 생활양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어느 부족들과 마찬가지로

지로 그들의 유사한 문화 속에서 종족별로 구별 지을 수 있는 가장 주요한 특징은 언어이다. 많은 종족들이 같은 어계(語系)에서 기원한 언어를 구사하지만 각 부족별 고유방언은 이웃 종족과의 의사소통도 불가능하다. 과거에 이 종족들 중 꽤 많은 수가 다양한 형태의 인간사냥을 했었으며 영토분쟁에서 비롯된 종족간의 전쟁은 흔한 일이었다. 필리핀은 7,0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뤄져 있지만 단지 약 700개만이 사람이 사는 섬이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캐롤리나 주요 종교인 국가다. 최근 들어 혼란과 고난, 사회적인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수백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소외된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삶의 모습

사실 필리핀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부족들은 농민이다. 주요 농작물은 논벼(wet rice)와 옥수수이며, 채소와 담배, 커피도 부업작물로 재배한다. 농장에서는 개, 염소, 닭 등의 가축도 기른다. 가장 흔한 농사법은 화전법이다. 경작지는 대개 집 근처에 있다. 농민들은 또 산비탈에 있는 계단식 관개논에 거의 의존한다. "베고 불태우"는 원시적인 농법이 아직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산출량은 빈약하다. 게다가 필리핀의 많은 원시인이 파괴됐다. 민다나오(Mindanao)의 동남부 해안에 살고 있는 마노보(Manobo) 같은 일부 부족들은 플랜테이션 농업(역자주: 서양인이 자본·기술을 제공하고 열대의 노동에 견딜 수 있는 원주민·이주노동자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단일경작을 하는 기업적인 농업경영을 말함)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

지만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일부 부족들은 여전히 사냥이나 채집을 주로 한다. 부족 총장들은 주로 개인 농장 둘레에 옹기종기 모여 있다. 필리핀 부족사회의 기본 단위는 대가족이며 대개는 신랑, 신부가 아주 어릴 때 미리 내정한다. 부족은 같은 친족 간의 성관계를 엄격하게 금기시하기 때문에 결혼은 이족혼인(exogamous)으로 거의 다른 부족과 한다. 어떤 외부 문화의 영향을 받았는지에 따라 부족 의상도 달라진다. 어떤 부족들은 허리에만 두르는 간단한 옷(loincloths)을 입는 반면 어떤 부족들은 현대식의 의상을 입는다. 부족들 간에 정치조직은 거의 없는 듯 보이며, 단 대부분의 마을에는 재판관이나 피고변론의 역할을 하는 총장(headman or chief)이나 우두머리가 있다.

신앙

대부분의 부족들은 애니미즘을

승배하므로 생활환경과 상황을 주관하는 많은 신들과 영적 존재들을 믿는다. 그들은 이 신들이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제물과 예배를 드려서 즐겁게 해 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 신들은 생물과 무생물에 모두 존재한다고 여긴다. 마을 사람들은 내생(next life)에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 지켜야 할 특별 의식들이 있다고 여긴다. 이트네그(Itneg)족과 같은 일부 부족들은 정성껏 의식을 치루기 위해 여자 무당이나 영매(영적 중개자)를 통해 행사를 한다. 그들은 무당들이 마법으로 병자를 고치며 영적 존재들과 교접하고, 여러 의식들을 주관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칼링가(Kalinga)족과 같은 또 다른 부족들은 그런 영적 존재들이나 또는 "아니토(anitos)"라고 하는 신이 실제로 내세로 떠나지 못한 죽은 친척들의 영혼이라고 믿는다. 칸카나이(Kankannaey) 부족에서는 사제직을 여성보다 남자가

주로 맡는데 그들의 제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물은 돼지다. 마노보(Manobo) 부족들은 아직도 '천상의 세계'(sky world)에 살고 있는 어떤 최상의 존재를 믿고 있으며, 기독교를 조금 접해본 적이 있는 비누키드(Binukid)족을 제외한 다른 부족들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부족이다. 그들은 아무 의미 없는 제사와 영혼 승배에 깊이 익숙해 살고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문명에서 소외됐던 이런 부족들도 이제는 서서히 현대세계로 들어오고는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매일매일 삶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싸우고 있다. 그들에게는 나은 의료시설과 좀 더 현대적인 농사법, 교육의 기회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많은 부족들이 자신들의 문자를 갖고 있지 못해 성경번역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예루살렘 성묘교회, 예수무덤일 가능성 높아

'예수의 무덤'으로 알려진 무덤이 적어도 17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의 무덤 주변 건축자들이 기원후 345년쯤인 로마 시대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무덤의 석회암 표면과 무덤을 덮고 있던 대리석 석판 사이에서 회반죽 표본을 채집해 연대를 측정할 결과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지금까지 묘지 안팎에서 발견된 가장 이른 시기의 건축적 증거는 십자군 시대인 12세기의 것이었다"며 "새 발견은 무덤이 1000년 전 파괴 속에서 살아남았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26년쯤 예수의 무덤으로 판단된 곳을 둘러싸는 형태로 교회 등 건축물을 세웠다. 이 성묘(聖墓)교회는 수백년간 공격과 화재, 지진에 시달리다 1009년 이집트 칼리파(이슬람국가 최고 지도자) 알 하킴에 의해 완전히 파괴됐다. 이후 여러 차례 복원을 거친 탓에 학자들은 성묘가 실제 예수를 안치했던 장소가 맞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무덤이 나사렛 예수로 알려진 한 유대인의 매장지라고 말하기는 고고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새로운 연대 측정 결과는 현재의 묘지가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대의 것임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1555년쯤 입구를 막은 '예수의 무덤'은 무덤을 둘러싼 성소 '에디쿨레'에 대한 복원작업 끝에 지난해 10월 26일 다시 열렸다. 석회동굴에 만들어진 무덤은 긴 선반 형태로 된 시신 안치대가 특징이다. 전해지는 바대로라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의 시신이 놓여져 있던 곳이다. 동굴을 깎아 만든 이 선반과 벽각(조각품을 놓을 수 있도록 벽을 오목하게 판 부분)은 1세기 예루살렘 유대인 부유층의 무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라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에디쿨레 복원작업 과정에서 연대 측정을 위해 여러 위치에서 회반죽 표본을 추출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복원작업을 지휘한 엔토니아 모로파올루로부터 최근 그 측정 결과를 제공받았다.

동굴 서쪽 벽면에서 채집한 회반죽 표본들은 335-1570년 것으로 측정됐다. 이는 로마시대에 건설작업이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추가 증거다. 모로파올루는 "회반죽들이 초창기 성전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에디쿨레의 역사적 건축 과정을 확인시켜준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말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석판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명령으로 4세기 중반에 설치됐을 것임을 보여주는 새 연구 결과는 성스러운 유적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환영할 만한 놀라움을 가져다준다"고 설명했다.

복음주의 교회 주일예배 금지 '에리트레아' 위해 기도들

아프리카 북동부에 있는 에리트레아는 30년 넘게 전쟁을 벌인 끝에 1993년 독립했다. 독립투사 출신 대통령은 북한을 모델삼아 독재정치를 이어갔다. 에리트레아는 1인당 국민소득이 480달러(55만원)로 세계 최빈국에 속한다.



이슬람교도가 가장 많은 에리트레아에서는 2002년 정교회와 루터교, 가톨릭을 제외한 모든 복음주의 교

회에 대해서 주일예배를 금지하는 법이 제정됐다. 이를 어겨 갇힌 기독교인 수는 한때 3000명이 넘었다. 현재는 400여명의 그리스도인이 투옥된 상태다. 기독교인임이 밝혀지면 특별한 재판 없이 곧바로 감옥행이다.

진짜 교회는 대부분 지하교회 형태로 존재한다. 허가를 받은 교회들도 정부 간섭과 통제 하에 있다. 에리트레아 정교회 수장은 교회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중지해달라고 요구하다 12년째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다. 에리트레아는 지난 해 세계기독교박해순위(WWL)에서 3위를 잡았다.

에리트레아의 테메스겐 게브레히웨트 목사는 최근 '한국순교자의소리'를 통해 에리트레아 그리스도인들의 석방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테메스겐 목사는 18세 때 예수를 영접, 에티오피아의 가장 큰 복음주의 교단인 칼레 헤이웨트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그는 정부 박해가 심해진 2002년 에티오피아로 도피했고 현지에서 13개 교회를 개척했다. 지금은 에티오피아 내 에리트레아인 난민 수용소에서 목회자들을 교육하고 있다.

테메스겐 목사는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순교자의소리 사무실에서 열린 강연에서 "에리트레아 감옥은 화물 컨테이너, 구덩이, 군(軍) 막사 등 형태가 다양하다"며 "수감된 기독교인들은 고문과 식량 부족, 위생 문제 등으로 많은 수감자가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얻거나 심지어 사망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순교자의 소리에 따르면 에리트레아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급습하면서 지난 5-8월에만 부모 모두 또는 한쪽을 잃은 어린이들이 50명이 넘었다.

테메스겐 목사는 "성경을 읽지 않을 것,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것, 전도하지 않을 것" 등에 동의하면 즉시 석방될 수 있다"며 "하지만 수감된 에리트레아인 기독교인들이 이를 거부하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순교자의소리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에리트레아를 위한 기도제목을 올리고 기독교인들의 석방 청원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순교자의소리 관계자는 "에리트레아 감옥 철창 뒤에 갇힌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의 '이슬람 혐오' 트윗에 영국 '발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 극우정당의 반(反)무슬림 동영상 리트윗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리고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이를 비판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받아치는 등 우방이던 미국과 영국의 관계가 냉랭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영국 극우정당 '브리튼 퍼스트(Britain First)'의 제이다 프랜스 대표 대행이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 3건을 자신의 계정에 리트윗했다.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 동영상은 무슬림들이 소년을 지붕에서 떨어뜨린 뒤 폭행하는 등 무슬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라 파장을 낳았다. 또 프랜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리트윗에 반색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축하를! 미국에 축하를!"이라는 트윗을 올리자 논란은 더욱 불붙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트윗에 영국 정치권은 거세게 반발했다. 메이 총리는 대변인을 통해 "영국인들은 편파·관용·존중이라는 국가 가치가 반하는 극우의 폄하적인 언사를 거부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은 더욱 거세게 반발하며 "트럼프는 더 이상 우리의 동맹이나 친구가 아니며 그의 영국 국민방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정계가 반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테리사 메이, 나한테 집중하지 말고 영국에서 일어나는 파괴적인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행위

에 신경 쓰지라.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비아냥거렸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했다. 샌더스는 리트윗 영상이 진짜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려보는 엉뚱한 것에 집중하고 있다"며 "영상이 진짜든 아니든 간에 (무슬림의) 위협은 진짜"라고 말했다.

성서주일, 세계 교회가 함께 지켜

오는 10일은 전 세계가 함께 지키는 성서주일이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성서주일은 더욱 뜻깊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독일에 성경을 번역·보급하며 성경의 가치와 권위를 회복시킴으로써 개혁 정신을 확산시켰다.



대한성서공회는 4일 "아직도 전 세계 곳곳에 자기 나라 말로 쓰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기다리는 지구촌 이웃들이 많다"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서기초사역을 위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지금도 아프리카에선 자기 나랏말로 된 성경을 갖지 못한 이들이 있다. 남수단은 성경이 유통금지 품목으로 지정돼있던 나라다. 2012년 남수단 수도 주바이 성서공회를 세우고, 성경 번역 및 배포 활동을 시작했지만 내전이 터지면서 다시 난관에 처했다. 성서공회 사무실이 피해를 입는 바람에 어렵게 성경을 구하려 찾아온 이들이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간다 동부 바마사바 부족은 지난해 처음으로 모국어 루마사바어로 번역된 성경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동안 공식언어인 루간다어와 영어성경만 있어 예배 시간에 별도 통역의 도움을 받아야만 성경 이해가 가능했다. 남양주 총신교회와 이재성 장로(진주동부교회) 등 한국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대한성서공회는 루마사바어로 번역된 성경 5100부를 제작, 기증했다. 해외 선교사와 그들을 지원한 세계성서공회의 도움으로 복음의 꽃을 피웠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성경 후원으로 다른 나라의 복음화를 지원하게 된 것이다.

한국교회는 1899년 5월 7일부터 전국적으로 성서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다. 최초의 신약성서 번역자 존 로스 선교사가 성서 번역 작업을 할 당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성서공회의 도움이 컸다.

대한성서공회는 성서주일 예배에 도움이 될 만한 한국 성서 번역 및 보급 역사 자료와 설교 자료, 영상 자료 등을 홈페이지에 올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화폐 열풍... '달러 대신 페드코인' 현실 될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열풍이 기존 통화시장에도 영향을 미칠까. 새해 첫날 개당 100만원 수준이던 비트코인 가격은 불과 1년도 안 돼 1300만원(4일 현재)을 훌쩍 넘겼다. 비트코인에 이용된 보안시스템인 블록체인의 기술이 다방면에 활용되면서 그동안 가상화폐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에도 관망하던 전 세계 통화 당국과 고민도 깊어지기 시작했다.



미국 웰스트리트저널(WSJ)은 3일 '가상화폐 열풍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확산될 수 있다'는 기사에서 "전자지불 방식이 대중화되면서 중앙은행이 게임(가상화폐 시장)에 동참해야 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최근 한 행사에서 "연준이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지만 우리는 그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

스코 연은 총재 역시 "중앙은행의 가상화폐 발행이 향후 10년간 매우 흥미로운 영역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앙은행이 관련 기술을 도입해 직접 가상화폐를 발행·운용하는 논의가 언제든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WSJ는 "지난 수년간 가상화폐를 호기심으로 바라봤던 중앙은행들이 이제 자신들의 가상화폐를 만들어야 할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제 '페드코인(Fedcoin)'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스웨덴 중앙은행인 릭스방크는 자국 통화인 크로나의 가상화폐 버전인 'e-크로나' 발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 역시 가상화폐와 통화정책 접목에 대한 연구·조사를 진행 중이다.

학계에서도 공공 가상화폐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모색하는 분위기다. 리트거스대학교와 다펜스대학교 경제학 교수들은 올 초 공동 발간한 논문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가상화폐가 '교환 비용이 들지 않고, 안전한 가치 저장소이자 안정적인 거래 단위'로 기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펜스대 앤드루 레빈 교수는 "연준이 이 문제에 있어 시급히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술적인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비트코인 등 기존 가상화폐의 통화가치를 인정할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제롬 파월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 등 연준 고위 관계자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수단으로 안정적이지 않고, 보편적 결제수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달러의 대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글로벌 금융자본들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한 현 시점의 규율을 원치 않는다는 점도 가상통화 안착에 비판적인 대목이다.

한국 정부 역시 가상화폐를 사행성 투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키로 했다. 가상화폐가 통로나 불법인 금융상품이 아니고, 정부가 가치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가상화폐 활용에 관심을 보이던 금융권이 관련 사업에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한 것도 당국의 기조와 무관치 않다.

아이슬란드와 함께 비트코인 최대 채굴(수익을 끌어 가상화폐를 생산하는 행위) 국가인 중국은 지난 9월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조달 방식인 ICO(가상화폐 공개)가 금융시장 안전성을 위협한다는 판단에서다.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이자 외환관리국장인 판공성은 "중국은 연초만 해도 세계 가상화폐 거래의 80%를 차지했는데, 만약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지 않았다면 중국도 비트코인 버블에 노출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대법, 8개국 입국 금지 트럼프 손 들어줘

특정 국적자를 입국하지 못하게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면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주로 이슬람 문화권을 대상으로 삼은 까닭에 종교·인종적 포용과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의 건국정신에 위배되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뿐만 아니라 전임 정권에서 지정한 국가기법물 자연유산을 지정해제 하는 등 국가 정책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작업을 잇달아 벌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북한과 리비아 베네수엘라 소말리아 시리아 이란 예멘 차드 8개국 국적자를 입국 금지하는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백악관 요청에 따라 4일(현지시간) 전면 인정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하급 항소법원 등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해당 행정명령이 완전 시행될 수 있게 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9월 24일부로 두 번째 수정된 것으로 기존 이슬람 문화권 6개국에서 수단을 빼고 북한과 베네수엘라, 차드를 추가했다.

안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40-김하태 목사(1916-2007)

김하태는 1916년 7월 8일 황해도 개성에서 아버지 김종필과 어머니 최덕순 사이에서 3남매 중 맏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결혼 후에 기독교인이 되더니 목사가 되어 평양중앙감리교회, 진남포 감리교회, 개성북부교회에서 목회하였고, 그 후에는 한국 감리교회 감독을 역임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었던 최영수의 딸이었다. 최영수는 개성상인으로 연안과 백천 등을 다니며 장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짓는 전도인으로 활동했다.

김하태는 개성공립초등학교를 다니던 5학년 때 평양으로 이사하여 공립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북감리교 의료선교사 윌리엄 제임스 홀 박사가 세운 광성중학교에서 공부한 후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했다. 그는 아버지와 외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목사의 길을 꿈꾸었다.

상향교회

연전을 졸업한 1938년에 김하태는 뉴저지 주의 드류신학교에 입학하여 3년간 공부한 후 본 신학교를 졸업하던 1941년에 뉴욕 주의 시라큐스 대학교에 입학하여 1년간 공부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 해 라이커밍 대학과 이스트만 음악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민덕순과 결혼하고 그 해 12월에 황사선 목사의 뒤를 이어 김하태는 상향교회에 부임하였고, 이듬해 6월에 목사안수를 받았다.

1942년 12월 6일 주일에 김하태는 사도행전 2:37-47을 본문으로 '생명 있는 교회'라는 제목의 첫 설교이자 부임설교를 하면서 전쟁이 한창이지만 참된 생명력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자고 역설했다. 음악을 공부한 민덕순 사모의 영향인지 다음 주일에 찬양대가 조직되었고, 이듬해 10월에는 찬양대

를 밝혔고 그 해 10월부터 박 목사를 이어 목회자를 찾고 있던 기간으로 보인다.

김하태는 교회를 기독교에 바탕을 둔 근대 민족주의를 훈련하는 공간으로 삼았다. 그는 1943년 1



김하태 목사

일 8시 반에 한인 1세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이는 그들이 미국사회에 적응할 뿐 아니라 미국 사회에 공헌하도록 하는 그의 목회를 엿볼 수 있다.

김하태는 그의 목회에서 미국 문화 속에서 자라난 한인 2세들과 한국 문화 속에서 성장한 1세가 어떻게 조화롭게 살 수 있을지도 염두에 두었다. 그래서 그는 1943년 1월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반까지 90분간 국어학교를 열고,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있는 민족 교육의 장으로 삼았다. 이듬해 8월부터는 금요일에 국어학교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1943년 3월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의 딸인 엘리사 아펜젤러 박사가 요한복음 10:9-16을 본문으로 '조신의 풍부한 생황이 무엇이냐'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는데 다음 달부터 청년들을 중심으로 황성수의 인도로 '조선문학반'을 시작했다.

주일학교는 1943년 전반기에 10명 정도가 모이다가 그 해 12월 출석수가 저조하여 어린이 주일학교는 중단되었다. 그 대신 이듬해 1월부터 장년주일학교를 시작했다. 5명 정도가 매주 일 아침 10시에

같은 해 11월 국민회 상항지방회가 새 임원을 선정할 때 김하태는 선전위원에 선임되어 전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다. 1944년 성탄절은 임대한 한인들을 위해 사흘을 쉬었다. 이듬해 2월에는 전후 한인 구제사업을 위해 특별헌금을 했다. 이어 3월에는 부인기독교봉사회 주관으로 난민구제 만찬회를 열고 성금을 모았는데 이후 교인들은 매월 첫째 주일에 특별 헌금을 하기로 결의하였으며, 1945년 10월 본회는 국수를 팔아 그 이익금을 구호금으로 보낸 것을 필두로 전제 민주회에 적극 참여했다.

전쟁 중 김하태는 1943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 국무성에서 근무하였다. 1946년 여름 해방된 조국에 나가 활동하기 위해 학문을 완성하고자 김하태는 사임하였다. 3년 6개월 동안 그의 첫 목회지 상향감리교회는 그의 '고향'이었다.

전쟁 중 김하태는 1943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 국무성에서 근무하였다. 1946년 여름 해방된 조국에 나가 활동하기 위해 학문을 완성하고자 김하태는 사임하였다. 3년 6개월 동안 그의 첫 목회지 상향감리교회는 그의 '고향'이었다.

나성감리교회 김하태는 1946년 나성의 남가주 대학교에 입학했다. 본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그는 나성감리교회를 섬기는데 1946년부터 1949년까지 3년간이다.

나성감리교회 김하태는 1946년 나성의 남가주 대학교에 입학했다. 본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그는 나성감리교회를 섬기는데 1946년부터 1949년까지 3년간이다.

나성감리교회 김하태는 1946년 나성의 남가주 대학교에 입학했다. 본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그는 나성감리교회를 섬기는데 1946년부터 1949년까지 3년간이다.

나성감리교회 김하태는 1946년 나성의 남가주 대학교에 입학했다. 본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그는 나성감리교회를 섬기는데 1946년부터 1949년까지 3년간이다.

본 교회는 이 1947년을 '역사상 최대의 획기적인 해'로 부른다. 그가 사임하던 1949년의 등록교인수는 180명이었고 주일학교 학생은 40명 그리고 여성교회 회원은 32명이었다.

상향교회 김하태는 남가주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버클리 거주 주립대학에서 한국문화사를 가르치게 되면서 1949년 6월 상향교회에 재부임하였으니 그의 복음 선교 때문이었다. 그에게 일반 목회 외에도 도미하는 한인들이 대부분 상황에 도착하였으므로 이들을 자동차로 맞이하고 안내하는 사역이 중요한 목회였다.

1953년에는 12명의 군인관과 한국 정부 관리, 군인, 교수 그리고 유학생 등 총 178명을 기록했다. 1950년 625동란이 일어났을 때 그는 이사야서 32:2을 본문으로 '위기와 인물'이라는 주제로 설교하면서 한국 민족에게 어느 때보다도 참된 지도자가 요청되고 있음을 외쳤다. 본 교회 부인기독교봉사회는 전쟁가운데 고난 받고 있는 동포들을 위하여 매일 기도회를 가졌다.

김하태의 목회는 1953년까지 약 4년간이다. 1950년 상향교회 교인수는 60명, 1951년에는 62명, 1952년에는 77명 1953년에는 82명을 기록하여 매년 조금씩 증가했다.

태평양한인연합감리교회 김하태는 1953년 7월에 오하이오 주 노던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전임했고, 1956년에 내한하여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와 본 대학교 신과대학장을 역임했으며, 1964년부터 남가주 나성 인근 워터 대학 종교철학 교수로 약 17년간 가르쳤고, 남가주 웨터 대학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은퇴한 1981년, 그가 재내한하여 목원대학 대학원장과 조대총장을 역임했다. 이와 같이 가르치는 사역을 이어가면서도 그는 복음 선교의 열정을 내려놓지 않았다.

그는 1961년에 미국 중가주 후레노 근방 추질라감리교회에 부임하여 3년간 섬겼고, 1964년 조용삼등과 함께 나성에 남가주한인회를 창립하고 한인회장을 맡아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충실했고, 63세 때인 1979년에는 나성 인근 사우스 파사디나에 태평양한인연합감리교회를 창립했는데 본 교회는 현재까지 건재하다.

2007년 3월 16일 그는 향년 90세에 남가주 라하브라 자택에서 별세하여 로즈힐스 공원묘지에 안장되까지 그는 복음 선교에 삶을 걸었다.

damien.sohn@gmail.com

목사 아들로 드류신학교, 시라큐스 졸업, 41년 상향교회 부임 음악전공 민덕순 사모와 음악목회... 나성감리교회 목회 땀 헌당



상향 교회



나성감리교회



태평양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를 기독교에 바탕 둔 근대 민족주의 훈련 공간으로 삼아 상향교회서 국어학교 열고 한국어와 문화 잇는 민족교육앞장

은 백인 집이나 식당 등에서 막일을 하거나 농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등 생활 형편이 어려웠으나, 이발소, 미장원, 여인숙, 커피숍, 식당 세탁소를 경영할 경우 형편이 좀 나아졌다.

김하태는 오를랜드교회의 대리목사로 3개월간 노신태 전도사와 함께 목회했다. 박용학 목사가 1943년 오를랜드교회에 사임의사

움을 주려고 했으며, 언더우드 박사를 통해 385달러를 한국에 보냈고, 나성한인장로교회의 부채 청산을 위해 242달러를 보냈고, 중국과 한인 난민을 위하여 의류를 모아 보냈다. 그 해 7월에는 나성감리교회의 건축을 위해 김하태 외 교인들이 167.50달러를 헌금했다.

김하태는 1943년 8월 국어학교 내에 영어반을 만들고 매 주 목요일

모였는데 첫 주일은 이동진 목사, 둘째 주일은 황성수 선생, 셋째 주일은 신사훈 목사 그리고 넷째 주일은 김하태 목사가 담당했다.

1944년 10월까지 상향교회의 청년 17명이 세계 제2차 대전에 참전했다. 청년 외에도 한국의 해방과 관련된 특별 임무를 위해 입대한 장년도 있었다. 이로써 상향교회는 전쟁과 관련된 목회를 한다.

그의 최대의 사역은 예배당 구입이었다. 교회 설립 후 42년간 17번이나 옮겨 다녔던 본 교회가 1947년에 그동안 건축헌금으로 모은 8,750불과 2,600불의 용자금 등 총 11,350불로 오차드 스트리트와 29가 모퉁이에 있던 스타칸다나비아 교회당을 구입하여 이전했다. 그 해에 용자를 청산하고 감격스러운 봉헌예배도 드렸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후 6:00(토) 영아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2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후 6:00(토) www.lafg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Bre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청년)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드로잉: 오전 6:30 EM: 대부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scsa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예배: 오후 1:20 영아예배: 오전 9:15,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40(월-금)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dena, CA 90248 www.dkp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민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수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k L.A., CA 90033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아)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www.mpcj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9:15, 11:30 주일학교: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LA 복음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이영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아동부/중고등부: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성경공부(목요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323)641-0691 / ys2104@hotmail.com / www.lagumc.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9: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새벽(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저녁 8: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얼빈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4인족찬양)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1,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례기도반: 365일 24시간 온전 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St.,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경대강좌: 오후 7:20(토)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lcic.org	좋은미용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후 6:00(토) www.socalsainsungchurch.org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수요일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estv.com / e-mail: pastor@iacorne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청년부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www.torrancegcc.org Tel: 310-370-50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96-4400 Fax: (718)89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성경도 신앙 (45) 청교도와 학교 교육



이운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3. 대학교

1) 대학교 설립과 과목

중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경제 형편이 나은 경우에 대학에 진학하여 기독교 지도자로 훈련을 받았다. 뉴잉글랜드에는 두 개의 대학이 있었다. 1636년 매사추세츠 주의 케임브리지(Cambridge)에 설치된 하버드 대학(Harvard)과 1701년 커네티컷 주의 뉴헤이븐(New Haven)에 설립된 예일대학(Yale College)이다. 이 두 대학은 청교도 자녀들의 교육과 신앙 형성에 엄청난 공헌을 하였다.

특히 하버드 대학은 헨리 던스터(Henry Dunster)가 학장으로 재직하던 1640년에서 1654년 사이에 대학으로서 기초를 견고히 하였다. 교과 과정은 영국의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대학과 비슷하였는데, 하버드 대학이 추구하던 모델은 영국의 케임브리지의 임마누엘 대학(Emmanuel College)이었다.

하버드 대학은 임마누엘 대학의 교과과정에 따라 논리, 수사, 윤리, 물리, 헬라어, 라틴어, 자연 과학 등을 기본적으로 가르쳤고, 더하여서 영국의 교과과정에는 없던 히브리어와 아랍어 같은 고전어를 가르쳤다. 이는 장래 설교자가 될 사람들의 원어 지식을 높이기 위한 배려에서 나온 것이었다.

2) 교수법과 커리큘럼

대학 교육은 교수가 강의를 하면서 교재를 읽거나 학생들의 토론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모든 학생은 기숙사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에 적용하는 훈련을 받았고 학교 법을 어기면 유급되었다. 학교 수업은 종교 훈련과 성경 연구가 주된 내용이었다.

아더 노턴(Arthur O. Norton)의 글에 나타나는 하버드 대학의 교과과정은 6가지 분야로서 ① 성경의 실천 ② 성경 연구와 분석 ③ 신학과, 기독교의 원리 ④ 원어로 성경을 읽는데 필요한 언어의 숙달 ⑤ 보조적인 연구-문학, 철학, 역사와 정치학-학생에 의한 성경 해석을 교정하는데 필요한 것 ⑥ 효과적 해석과 자신의 해석을 옹호하는데 필요한 연구와 훈련-수사, 연설, 토론, 설교

의 반복"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신앙 훈련을 통하여 대학교 졸업생의 반 수 이상이 목회자가 되었고, 나머지는 사회의 정치와 경제 및 다양한 방면의 지도자로 나서서 경건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동력이 되었다.

2. 청교도들의 학교 교육의 성장과 개발

1) 초창기 식민지의 정치적인 상황

청교도들은 지식과 가치체계를 보존하기 위하여 자녀들을 성서적으로 교육하고자 하였다. 17세기와 18세기의 미국의 교육사상의 발전은 정치, 교회,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찾아온 이들이 유럽에서 식민지로 가져온 일종의 종교개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

초기 개척자들이 종교적 자유만을 위해 신대륙에 왔다고 단언 못해 18세기말엔 교육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더 이상 갖지 않으려 해

다. 유럽의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와 국가의 독점할 정도로 긴밀했던 연결을 가지게 되었고, 교육은 서로 뒤얽힌 유럽인 생활의 정치, 종교, 그리고 경제적 측면을 낳은 세속적 교훈과 개신교 기독교적 교훈의 통합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일부 사람들이 말하듯이 식민지 미국의 개척자들이 이 땅에 온 것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단순화시켜서 종교적 자유만을 구해서 왔다고 단언하는 것은 잘못된 평가일 수 있다. 영국, 스페인, 프랑스,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의 이주자들이 북미에 오게 된 동기는 다양하고 복잡했다.

실제 많은 부분이 종교의 박해와 올바른 종교 표현과 자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 다른 사람들은 천연자원을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에서 경제적 이익이 되는 유리한 기회를 위해서 왔다. 또 다른 일부는 조국의 정치 및 경제적 관심을 촉진시키고 싶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문화의 교육의 근본은 식민지 시대의 북유럽, 그 중에서도 영국 제도의 원천에서 대부분 특성을 빌려왔다. 이 사실은 다른 유럽인들의 기여를 제외시키지는 않는다. 그런

영향들은 미국의 동부 해안선을 따른 모든 주들의 생활과 사고의 지배적 양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때면, 칼빈주의적 분리주의자로 매사추세츠에 최초로 정착했던 영국 청교도들은 영국의 스튜어트 왕가의 종교와 정치의 박해를 피해온 사람들이다. 다른 이들은 1607년 제임스타운에 최초로 정착한 귀족적인 버지니아 사람들 경우처럼 신세계에서 모험과 행운을 잡기 위해 왔다. 그래서 교육은 이런 정신을 소유한, 계급의식을 지닌 정착민들의 우선순위를 넘지는 못하였고, 그런 점에서 교육에 있어서 열등한 교육제도를 낳게 되었다.

예를 들면, 1671년 버클리 경의 성명서는 금전적 이익과 모험주의를 목적으로 미국에 온 사람

들의 교육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잘 요약하고 있다:

"나는 무료학교나 인쇄물이 전혀 없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희망하건대 우리는 이런 것들을 100년만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은 세상에 불복종과 이단과 분파를 초래해 왔으며 또 인쇄물은 그것을 누설하고 지고의 정부에 반대하여 중상을 일삼아 왔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라!"

1776년 독립선언이 채택되었고 각주가 독립전쟁 이후, 개개 주정부들은 교육을 각기 수용하였다. 그러나 여왕의 영향권에 속하던 통치지와 지주를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여왕의 면밀한 검토와 재가 아래 모두 놓여 있었다. 이런 변화는 나중에 호레이스 만(Horace Mann)같은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 대중교육을 지향하던 19세기 후반의 운동을 위한 길을 예비하였다.

2) 초창기 식민지의 종교적 상황

주정부의 설립은 후기 식민지와 초기 독립국가 시대의(1770-1800)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지향한 운동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루소, 흄, 칸트, 페스탈

로찌 그리고 그 이외의 사람들의 자연주의적 사상을 통해 종교개혁 이후의 유럽에 고전적 인문주의를 불러일으킨 계몽주의는 영국에서 교육받은 정착민들에 의해 대서양을 가로질러 미국 식민지로 전해지기 시작했다.

개척자들은 확립된 기독교 신조를 가져왔으며 그에 따라 루터, 칼빈, 기타 개혁자들의 사상의 산물이었던 교회와 국가 간의 긴밀한 연결성의 사상도 들어왔다. 네덜란드 출신은 네덜란드의 개혁교회를 들여왔고, 영국 성공회 교인은 버지니아와 캐롤라이나에 영국교회를 설립했으며, 스웨덴 사람들은 델라웨어에 루터교회를 들여왔고, 퀘이커교도들은 펜실베이니아에 정착하였고, 청교도들은 회중주의와 장로제도 형식의 칼빈주의를 뉴잉글랜드에 가져왔다.

1776-77년에 제정된 각 주의 헌법들은 델라웨어, 펜실베이니아,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리고 메릴랜드의 관공서에서의 약간의 제한을 제외하고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따라서 18세기 말에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지향한 경향과 또 교육과 종교를 통

제할 합법적인 권리를 보유한 국가가 초기 식민지 시대의 경우에서처럼 교육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더 이상 가지려고 하지 않음이 분명해졌다.

신학적인 개념에 기초하면서 기독교적인 제재에 의해 시작된 초기 식민지의 정신적 경향은 18세기 말경의 비종교적이고 또 정치적인 제재로 발달하였다. 계몽주의를 지향한 운동이 계속되는 중이었다.

특별히 18세기 동안 사고와 행위의 옛 방식의 변화를 위한 제안은 하나님의 법보다는 인간적인 이성, 초자연적인 권리보다는 자연적인 권리, 확정된 진리보다는 과학적 방법, 권위적인 통제보다는 개인적인 자유, 귀족적인 특권보다는 인도주의적이면서 민주주의적인 신앙에 대한 호소를 전달하였다.

지적 제재 측면에서의 이 같은 강조의 변화에 따르는 결과는 신학과 종교, 철학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이론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그것들은 결국 교육 실행의 변화로 이끌었던 교육적 변화에 대한 제안과 새로 출현한 교육이론의 형식 가운데서 역시 발견되었다.

younsklee@hotmail.com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교회)

감사의 소리

오늘 아침 아무 표정이 없는 내게 남편은 '표정이 왜 그래? 풀 한포기 보면서도 행복하고 기뻐하면 세상이 온통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야단법석이잖아, 오늘도 기쁘게 잘 지내' 라고 말하고 기도원에 간다고 떠났다. 그렇다. 삶은 내가 가꾸는 것만큼만 나를 가꿔준다. 우리는 불에 스치는 바람소리, 호숫가에 때로 물려 있는 오리소리,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소리... 이런 일상에 귀 기울이고 그 소리들을 온몸으로 받으면 어느새 가을이 성큼 내게 다가와 잡재된 내 영혼의 에너지를 힘껏 퍼 올려 주는 생명이 되리라.

요즘 들어 새벽을 깨우는 자명종이 울리기 전에 만물이 깨어나는 소리를 알아채고 눈이 절로 떠지는 것은 나이 탓만이 아닌 가슴이 시키는 일 같다. 오늘 하루도 나보다 더 크고 거대한 거목 같은 분께 연결되어 있는 안도감으로 충만히 채워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충전 받을 심산이다.

내가 좋아하는 글 가운데 '하나님은 바쁜 사람과 친하지 않으신다' 라는 문구를 내 책상 옆에 붙여 놓고 늘 맘이 분주해지려 할 때마다 나는 그 글을 읽는다. 그렇다 하나님의 입재 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것도 마음 중심을 다해... 그래서 성경속의 한나는 여호와 앞에서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절박하게 드렸다. 기도는 그렇게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쏟아 놓는 것이리라.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심정을 쏟을 만큼 영혼을 사랑하지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게도 절박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걸까.

감사의 계절이다. 한 해를 돌아 또 다른 감사절을 주신 것은 다시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살라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라고 새 감사절을 주신게다. 살아온 날 동안 주님을 만나고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너무 감사해서 목 놓아 울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때만 받았는가? 주님은 날마다 끊임없이 동행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때만 은혜를 받았다고 목 놓아 운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리라. 영혼이 성장하면 사람은 감사가 절로 나온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는 내 영혼을 소생케 하리라. 한 치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 오늘 하루 맘 편히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닌가.

그렇다. 그래서 가장 잘 사는 길은 오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내일은 사실 생각 속에만 있고 달력의 숫자로만 있다. 언제나 오늘만 있는 것이다. 성경속의 고침 받은 10명의 문둥병자중 1명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받은 은혜에 감사했을 때, 그는 육신의 고침뿐 아니라 영생까지 받았다. 감사하므로 주님의 눈에 두드러질 때 우리는 응답뿐 아니라 축복까지 받는다. 응답은 구한 것을 받는 것이고 축복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받는 것이리라.

계속해서 마음을 괴롭히는 어떤 문제로 짐착에 빠질 때 고요히 앉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본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고 고민해서 해결될 문젠가? 그렇게 묻고 물어야 응답이 오지 않을까. '부모가 자식을 제일 몰라' 우리는 내 아이를 안다고 하는 순간 이미 그 아이에 대한 앎이 딱 차버려서 어떤 작은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아이를 잘 안다는 틀로 꼭 채우고 있지 말고 늘 모른다는 맘으로 계속 물어보면 어떨까? "넌 뭘 먹고 싶니? 좋아하는 노래는? 좋아하는 영화는? 넌 뭘 공부하고 싶니?" 예수님도 병자에게 '네가 낫고 싶냐고 물어봐도 말았다.

모세는 그 위대한 일을 하고난 후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도 못 들어가는, 그래서 그냥 이슬처럼 사라지는 있는 듯 없는 듯 한 리더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그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위대한 리더로 우리 가슴에 남아 있지 않은가. 우리는 어쩌면 아이들에게 내 영혼을 성장시키는 경건한 삶을 살라고 가르치면서도 계속해서 남보다 더 잘해야 하고 더 많이 소유해야 한다는 이 기심과 소유욕을 함께 불어 넣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 사람은 자기를 내세울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을 때 진짜 사는 힘이 한데 모아질 수 있는 것 같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지금보다 더 좋을 순 없으며, 이런 내가 좋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리라.

이 감사의 계절에 수많은 감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런 감사의 소리들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가슴이 있어서 행복한 겸손으로 인생을 살아갈길 바라며 두 손을 모은다.

changsam01020@gmail.com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해 온
미드웨스트대학교
www.midwest.edu

Master and Doctoral Degree Program Brain/Gifted Education 두뇌개발, 영재교육 석사, 박사학위 과정 MBA - Public Policy/Administration 공공정책과 행정학 석사학위 과정

Master of Arts Education in Brain / Gifted Education

입학자격: 유아교육, 교육전공 학사학위 이상자 및 동등 학력자

Doctor of Leadership in Brain / Gifted Education Leadership

입학자격: 대학에서 유아교육, 교육 전공자, 유아교육, 교육전공 석사학위 이상자 및 동등 학력자, 교육경력 3년 이상인자.

MBA - Public Policy Administration

입학자격: 대학졸업자 및 동등학력자

● 학점, 학위취득 방법 ●

- 1) 미국 유학을 희망 하는 학생은 SEVIS 1-20 혹은 J-1 Visa
- 2)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계절별 세미나와 소집특강 및 Online 으로 학점취득 가능.
-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이 가능함.
- 4) 타 학교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함.

●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 B.A 학사- 경영학, 음악, 신학, 기독교교육학
- B.S 항공학과- 조종사과정, 승무원, 운항관리사
- MA 음악, 영어교육, 상담, 교육(두뇌개발, 영재 교육)
- MBA 리더십학, 공공정책과 행정, 글로벌비즈니스, 경영학, 투자
- M.Div 신학
- D.Min 상담, 교육, 목회신학, 선교,
- DM 음악 박사
- DL 리더십학 박사 - 경영리더십, 조직리더십, 두뇌개발/영재교육리더십

B.S in Aviation Management/ Flights 항공학 학사 및 국제 조종사 면장과정

전공: 항공운항과, 헬기운항과, 운항관리사, 승무원과정

신청자격: 고졸이상자 및 전문대 혹은 대학 중퇴자, 대학졸업자, 전공에 관계없이 편입가능, 여학생 환영

● 항공학과 특징 ●

- 1) 미국의 타 항공학과와 비교하여 저렴한 수업료
- 2) 한국에서 조종 실기는 2-3년 소요되는데 본교에서는 학위과정 중 조종사 면장까지 취득가능.
- 3) 비행 훈련을 위한 넓은 활주로와 실기용 비행기 20 여대 준비 되어있다.

Pilot Certificate Programs (국제조종사 FAA 면장과정)

일반 대학졸업자를 위한 조종사 면장과정- 1년 과정(자가용면장, 계기비행면장, 상업용 면장)

● 본교소개 ●

본교는 1986년 세계인재발굴과 양성을 위해 미 중부 도시 St. Louis 에 설립되어 개교 32 주년을 맞는 미국 대학교이며 워싱턴 DC 에 본교, 서울, 방콕, 페루에 Site 를 두고 있고 동문과 재학생은 세계 60 여개국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대학교이다.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gov/accreditation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대학코드 (USDE) OPE ID: 03528300
미국,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학점과 학위를 인정 받는 미국정규 학위

입학상담 및 문의처 : 636-327-4645, 070-8690-2662,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Tel: (636) 327-4645 / Fax: (636) 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 730-4750 / Fax: (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



목회서신

예수 믿는 비용 얼마나 됩니까?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지금은 고인이 되신 서울 한신교회 이종표 목사의 목회일화입니다. 이종표 목사님께서 젊은 날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주일학교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시골에서 자수성가한 부지런한 농부였다고 합니다. 자수성가했으니 돈에 대해서는 아주 구두쇠였습니다.

의 어머니가 먼저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집에 심방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뒤 목사님께서 아이 아버지에게 "이제 아버님도 교회에 나오시지요...했더니 아버지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반문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면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담배 값 정도면 믿겠습니다." 교회 나가면 담배는 끊어야 하니까 평소 담배 사던 돈만큼 헌금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정도면 충분하니 교회 나오세요" 그러자 아버지는 기뻐하면서, "거 비용이 얼마 안드네요" 하며 예수 믿고 교회 나오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교회 나왔고 1년간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교회 나가면서 담배도 끊고 담배를 사던 돈을 모아서 열심히 헌금했습니다. 가끔 감사헌금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아버님, 이제 1년이 지났으니 세례 받으시지요?" 했더니 세례는 완강하게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물으니 "어디서 들었는지 세례 받으면 십일조 해야 된다"는 얘길 들어서 그게 부담이 되어 세례는 안 받고 교회만 나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이 목사님께 "십일조를 드리려면 농사비용을 빼고 드립니까? 아니면 수확전체의 십일조를 드립니까?"하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냥 믿음대로 편하게 하세요" 했더니 그 해 가을에 쌀 두가마니를 십일조로 드렸다고 합니다. 농사비용을 빼고 순이익의 십일조를 드렸습니

다. 그리고 세례도 받았습시다. 그런데, 다음해 가을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농사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십일조로 쌀 열가마니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확의 십일조를 다 드린 것입니다. 온전한 십일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예수 믿는 비용이 많이 올랐네요?" 목사님의 질문에 그분은 놀라운 대답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도 비싸게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예수님은 내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는데...나는 싸구려로 믿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싸구려로 예수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비싸게 믿

로 했습니다. 고귀하신 분을 비싸게 믿는 것 당연하지요. 이제는 예수 믿는 비용이 늘어가는 것이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분의 얼굴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만족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분은 더 많은 농사를 지어 그 마을에서 가장 큰 부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깨달아지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큰 즐거움이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성도가 바로 주님오시는 날 등잔에 불 밝히고 당당히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성도일 것입니다. 말씀을 준수하는 일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들고 설수 있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총체적 위기...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한반도 평화통일 위한 LA구국기도회

세계한인기독교 총연합회(세계총 대표회장 황이춘 목사)가 주최한 총체적 위기에 처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LA구국기도회가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개최됐다.



세계총 주최 한반도 평화통일 위한 구국기도회에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본 교회 월드프리미어센터에서 열린 첫날 기도회는 세계총 미주지회장 이재덕 목사 인도와 본 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 김영구 목사(LA목사회장)가 기도했으며 세계총 후원이사 이옥미 목사가 성경봉독 했다.

이어 본 교회 챔버콰이어가 특송했으며 한기홍 목사(미기총 증경회장)가 '이때를 위한인지 어찌 아느냐'(예4:13-17)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목사는 "한반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 등으로 총체적 위기에 봉착해있다"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단한 것처럼 조국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번 교회들은 좋은 시설에서 예배드리고 자녀들과 편히 잘살기 위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다. 조국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어려울 때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주실 것이다"라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중보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미기총 증경회장인 한기홍 목사가 '한반도 통일을 위하여', 세계총 상임회장 김바울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심평중 세계총 공동회장이

'한인 디아스포라 750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황경일 목사(미기총 대표회장)가 격려사를 했다. 이날 기도회는 최낙신 미기총 증경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LA기운실 주최 사회봉사상 시상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생명의전화 수상, 유용석 장로에 감사패 LA기운실 주최 제6회 사회봉사상 시상식

LA기운실(대표 박문규 박사)가 주최한 제 6회 사회봉사상 시상식이 2일 오후 오펜카운티 부에나 파크에 있는 코미 뷔페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사회봉사상 시상식에서는 1998년 6월 1일부터 인생길에서 좌절과 절망으로 힘들어 하는 동포 사회를 위해 전화 상담을 해온 생명의전화(대표 바다윗 목사)가 선정돼 수상했다. 바다윗 목사는 "하나님께서 미주 동포들의 아픔을 치유하라는 마

음을 주셔서 19년 전인 지난 1998년 생명의전화를 설립하게 됐다"며 "생명의전화를 통해 동포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이롭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회봉사상 시상식은 더 많은 동포들의 아픔을 치유하도록 유용하게 사용하는 격려라 생각합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LA 기운실을 창립하고, 여러 동포들의 아픔과 어려움, 그리고 건강한 교회운동과 북방 선교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유용석

장로(93세)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유용석 장로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지나치지 못하고 돌보는 천성을 주셨다"며 "생각해보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던 것이 자랑이 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굶어죽는 북한어린이 위해 빵공장 등을 만들었으며 러시아의 고려인들 중국의 조선족들을 돕는 일을 하는 동족사랑운동에 종사해왔다. 이 일들을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했으며 좋은 후배 일꾼들과 함께한 것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박문규 대표는 "유용석 장로님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패턴대로 사셨으며 신앙에 있어서 승리하신 분"이라 소개하며 "젊은 시절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일구셔서 동업하던 파트너는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유 장로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돈이 모아지는 대로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셨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유 장로님은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보여주셨으며 그런 삶의 족적이 있었기에 LA기운실을 통해 사랑의 빵공장을 경영할 수 있었으며 병원설립을 추진할 수 있었다. 또한 연변과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도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학교 주최 제22회 학생음악축제에서 전출연자들이 공연을 마친 후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마틴 루터, 그의 음악인들' 주제 월드미션대학교 제22회 학생 음악축제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박사) 제 22회 학생 음악축제가 1일 오후 7시30분 한길교회(담임 노진준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학생음악축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마틴 루터(Martin Luther)의 음악이 종교개혁과 개신교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음악을 통해 조명해보고자 '마틴 루터, 그의 음악인들(Martin

Luther, His Musicians)'이라는 주제로 열었다. 마틴 루터의 영향을 받은 작곡가들 중 4명의 작곡가 하인리히 쉬츠, 요한 세바스찬 바흐, 필리프 멘델스존, 그리고 요하네스 브람스의 작품들 속에서 다양한 장르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마틴 루터의 개혁사상과 음악 정신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정명 총장은 "종교개혁의 불을 지핀 마틴 루터는 개혁을 이루는 과정에서 음악의 힘을 많이 의존했다"며 "그가 마음속에 지녔던 음악 철학인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선물이자 말씀선포로서의 음악이 그의 사상을 추종했던 작곡가들과 작품들 통해서 물씬 풍기고 있다"고 말했다. 송 총장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의 첫해 동안 개혁자들의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깊이 품게 된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개혁하며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마음으로 다짐하는 연주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세계이단상담연구소 개소예배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 LA 사무실 오픈 지난달 30일 개소예배...달라스 이어 두 번째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이하 세이연, 회장 김순관 목사)가 LA(1650 Wilshire Blvd, #203)에 새롭게 사무실을 오픈하고 개소예배를 드렸다. 지난 11월 30일 오후 4시 베들레헴장로교회(담임 서종천 목사)에서

한선희 목사의 인도도 시작된 개소예배는 기도 이태경 장로(달라스 이단상담소 소장), 설교 김순관 목사(세이연 회장), 축사 임영호 목사(갈빈신학교 학장)와 최순길 목사(세이연 이사), 축도 이종명 목사(세이연 부회장)의 순서로 드러졌다.

또한 백남선 목사(기이협 대표회장), 박형택 목사(합신 이단상담소 소장), 강경호 목사(한국기독교이단목회연구소 소장), 김성환 목사(합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현문근 목사(한교연 이단대책전문위원), 성경순 사모 등이 개소를 축하하는 메시지와 영상을 보내왔다. 이날 말씀을 전한 김순관 목사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요 6:38-39)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에 이단에 빠진 사람도 많고 상처 받은 사람들도 많다. 이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세우고 돕는 일을 위하여 상담소가 세워지는 것은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는 것임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한선희 목사는 "이단들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자신은 물론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교민들의 신앙까지도 위협을 받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많은 사이비 이단들로 인하여 매우 힘든 상황이다"라며,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보호하기 위해 상담소를 개소하게 됐다"고 상담소 오픈 동기를 밝혔다. 세이연은 지난 3월 개최된 제6차 총회에서 한국기독교이단상담연구소(소장 박형택 목사)와 MOU를 체결하고 서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이단에 빠진 영혼들을 구출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현재 미주에 공식적으로 개소한 상담소는 텍사스 달라스에 3년 전에 개소한 상담소(소장 이태경 장로) 외에는 없다. 따라서 이번 LA 상담소 오픈은 세이연 사역의 활동에 활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323)823-0691 (정리 박준호 기자)

올한해 베풀어주신 은혜 감사...8교회 참가

2017 LA동부교협 성탄찬양제 성황

2017 LA동부지역 연합찬양예배가 유니온교회(담임 김신일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찬양제는 글로발선교교회(지휘 최조연), 엠마오장로교회(지휘 최조연), 나성한미교회(지휘 김애니), 선한목자교회(지휘 정희숙), 하나로커뮤니티교회(지휘 서건),

선한정지교회(지휘 채홍석), 아름다운교회(지휘 김조희), 유니온교회(지휘 주사인) 등이 출연해 성탄의 기쁨을 찬양으로 표현했다. 유니온교회 주님만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성탄찬양제는 송병주 목사(동부교협 부회장/선한정지교회)가 기도했으며 김신일 목

사(동부교협회장/유니온교회)가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의 우리들의 이야기'(창1:1, 계22:20-2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신일 목사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주셨다"며 "오늘 이 자리에 동부지역 교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담긴 우리 각자의 이야기를 바르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LA동부교협 주최 LA동부지역연합찬양예배에서 모든이들이 연합으로 찬양하고 있다

동부교계 게시판



뉴저지한인목사회 전도 세미나

뉴저지한인목사회(회장 박근재 목사)가 주최하는 전도 세미나(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명)가 8일(금) 오전 10시-오후 12시 뉴저지프라이미스교회에서 열린다. 강사는 윤보환 목사(인천영광교회 담임/기독교 대한 감리회 중부연회 감독)

▲문의: (201)815-9254 총무 홍인석 목사

“동성애와 기독교의 미래” 세미나

“동성애와 기독교의 미래” 세미나가 뉴욕과 뉴저지에서 각각 열린다. 강사는 김지연 약사이며 한국국가기독교운동 미동북부(대표 정명희 목사)와 국가기독교세계지도자연맹이 주관하고 뉴욕과 뉴저지, 교협과 목사회가 후원한다. 일시는 △12월 13일(수) 오전 10-오후 3시 뉴저지 필그림교회(담임 양준길 목사) △14일(목) 오전 10-오후 3시, 뉴욕평화교회(담임 임병남 목사). 강의내용은 1)동성애의 보편적 문제와 차급법 2)차별금지법의 사례와 위력 3)투쟁술 15가지 4)트랜스젠더리즘과 젠더이데올로기 5)청년들과 동성애에 대해 6)동성애에 대한 흔한 질문 7)동성애와 히피, 후기구조주의, 페미니즘 사상적 계보 등이다.

▲문의: (917)817-3883

KCBN 28주년 감사의 밤

미주기독교방송국(KCBN, 사장/이사장 윤세웅 목사) 창간 28주년 감사의 밤이 12월 11일(월) 저녁 6시 플러스 대동연회장에서 열린다. 예약이 필요하다.

▲문의: (718)463-1700



청지기부부합창단 창단연주회에서 찬양하고 있다.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청지기부부합창단 창단연주회

청지기부부합창단 창단연주회가 지난 3일 오후 6시 뉴욕생명교회(담임 김영인 목사)에서 열렸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출신들로 구성된 합창단 단장 이종태 목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목적으로, 주어진 재능을 활용해 선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 창단하게 됐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구성원은 목사와 목사후보생 부부로 구성돼 현재 23명의 단원이 있으며 앞으로 5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합창뿐 아니라 브라스 앙상블을 조직해 악기연습도 하고 있다.

이날 연주회는 뉴욕심포니챔버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연주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이종태 목사 인도로 기도 김영인 목사, 말씀 이은길 목사, 축도 이규본 목사, 인사말 이종태 목사, 광고 정인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은길 목사는 “찬양의 삶”(시

68:19)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성도의 시작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쳐야 한다”며 “찬양을 삶의 현장에서 가져가라. 찬양은 첫째 문제를 해결한다. 둘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셋째 승리를 가져다준다. 남은 인생 찬양을 통해 기적의 역사를 이뤄가라”고 말했다.

연주회는 ‘은혜의 찬송’과 ‘글로리아’(비발디)로 나눠 ‘은혜 아니면, 참 좋으신 하나님’, ‘시온성 향해 나아가라’, ‘주기도’(트럼펫, 신동기)를 부르고 ‘글로리아’ 12곡을 합창했다.

△지휘 신동기 △오르간 신주희 △소프라노 고예진, 남상희, 이윤, 허효선, 홍영희, 박유미 △엘토 김애경, 김태진, 이은영, 이영주, 정신정, 송지혜 △테너 이종태, 오경창, 정기태, 최정환 △베이스 김영인, 김대진, 정인수, 조현웅, 박종욱.

(유원정 기자)

12월 10일 ‘후원자의 밤’ 경과보고

미동북국제기아대책기구 11월 정기모임

미동북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유상열 목사)가 지난 29일 11월 정기모임을 갖고 12월 초 후원자의 밤 행사 진행사항을 점검했다.

동 기구가 매년 아동후원자들을 초청하는 후원자의 밤은 12월 10일(주) 오후 6시 뉴욕늘기교회(담임 김홍석 목사)에서 열린다. 이날 후원자들에게 2017년 선교보고와 아울러 선물도 증정된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전희수 목사 인도로 기도 권금주 목사, 설교 박진하 목사, 합심기도, 축도 유상열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박진하 목사는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행22:6-10)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까?”라고 묻고 “기아대책은 빵과 복음 전파의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앞으로 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믿음의 길을 가지만 어려움과 부족함을 당할 때 좌절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본문 사도바울의 간증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며 “기아대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단체가 돼서

뉴욕교계에 소문이 나고 많은 사역을 잘 감당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는 유상열 목사의 사회로 개회기도 후 전희수 목사가 사역보고를 했으며 폐회기도는 이종명 목사가 맡았다.

12월 월례모임은 27일(수) 오전 10시30분 기쁨과영광교회에서 모이며, 후원자의 밤 경과보고와 함께 2017년을 결산하게 된다.

(유원정 기자)



미동북국제기아대책기구 11월 정기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지역교회들을 위한 교협” 표어 걸고 출범

뉴저지교협 31회기 회장 및 임실행위 이취임예배

뉴저지교협 31회기 회장 및 임실행위 이취임예배가 지난 4일 오전 10시 뉴저지장로교회(담임 김도완 목사)에서 열렸다.

“지역교회들을 위한 교협”이라는 표어를 걸고 출범한 31회기 회장 윤명호 목사는 “30년을 한 세대로 생각하면 31회기는 다음세대로 가는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의미는 먼저 과거를 돌아보며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을 감사한다. 그래서 35년사 역사편찬 위원회를 만들었다. 또 미래를 바라보며 교협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 많은 회원들을 만났다. 그래서 교협의 모든 행사를 교협 표어에 맞춰 기획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임원단의 열심과 증경회 장단의 격려, 단체들의 협력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1부 예배는 홍인석 목사 인도로 찬양과 경배 이준규 목사, 기도 이의철 목사, 성경봉독 강영안 장로, 찬송 팽팍시니어 합창단, 말씀 이병준 목사, 헌금기도 이종태 장로, 헌금특송 뉴저지권사합창단, 축도 김



뉴저지교협 31회기 회장 및 임실행위 이취임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센트럴교회 새성전 입당감사예배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찬양대가 할렐루야를 합창하고 있다.

18년의 인내...주님 꿈 있는 교회로

뉴욕센트럴교회 새성전 입당감사예배

뉴욕센트럴교회가 지난 3일 오후 4시 새성전 입당감사예배를 드렸다.

1999년 7월 올드웨스트베리(154 Old Westbury Rd)에 건축 부지를 구입한 이래 18년 만에 입당하게 된 센트럴교회 담임 김재열 목사와 교인들은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꿈이 있는 교회”(행 13:1-3)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맡은 KAPC 총회장 유재일 목사는 “하나님께서 18년 동안 지으신 이 교회당을 보니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영광”이라며 “이 아름다운 교회당에서 신앙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교회관을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목사는 “보이지 않는 교회(천국)에 비해 보이는 교회(지상교회)는 흠이 많고 완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진리, 영생의 진리, 하나님의 축복의 진리가 불안정한 지상교회에 있다”며 “센트럴교회가 주님의 꿈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선교의 꿈, 희생과 헌신을 드리는 교회가 되라”고 말했다.

1부 감사예배는 김재열 목사 인도로 기도 김성국 목사(퀸즈장로교회), 찬양대의 찬양, 성경봉독 이재덕 목사(뉴욕남노회장), 설교 유재일 목사(총회장), 헌금기도 황상하 목사(뉴욕동노회장), 찬양독주 광병국 장로의 순서로 진행됐다.

2부 축하순서는 내빈소개 유성열 집사, 건축보고 이형기 장로(건축위원장), 공로표창, 이형기 장로, 유성열 집사, 피터송 집사, 권대주 명예장로, RM&Inc(Brian McClellan), More Bank(Paul Hyon), 축사 영상과 올드웨스트베리 시장 Fred Carrillo, 론김 하원의

원, 이만호 뉴욕교협회장, 황인철 목사(아름다운교회), 인사와 광고 윤창권 장로, 할렐루야 합창, 축도 김병혁 목사(강변교회 원로)의 순서로 진행됐다.

3부 축하만찬은 정세균 목사(시드니교회 사무총장)의 감사기도 후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에게 선물을 증정했다.

센트럴교회는 2001년 클로징을 하고 2010년 조경공사 후 건축 조건부로 승인받았으며, 2013년 RMA Inc와 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공사를 시작해 2017년 10월 입주허가 C/O를 받았으며 22일 새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

교회는 총 21에이커로 건물은 6만 스퀘어피트가 조금 못된다. 본당은 보조의자를 놓으면 8백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교육시설로 EM, 중고등부와 주일학교를 위한 소예배실과 교실 40개를 갖는다.

실내체육관은 5백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친교실 겸용으로 사용한다. 건물밖에는 어린이 놀이터, 농구장, 테니스 코트, 축구장도 있다. 350대 파킹이 가능한 파킹장이 있으며, 정식허가는 못 받았지만 야외외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교회는 푸른 숲과 잔디가 대부분을 차지해 마치 공원 같은 분위기. 교회를 한 바퀴 도는 산책로 거리가 0.8마일이다.

김재열 목사는 “전후후무한 예배당 건축이다. 앞으로 크리스천 스킨, 시니어를 위한 데이케어 센터, 예체능교실, 선교비전센터도 계획하고 있다. 한인 커뮤니티뿐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비전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유원정 기자)

이만호 뉴욕교협회장, 황인철 목사(아름다운교회), 인사와 광고 윤창권 장로, 할렐루야 합창, 축도 김병혁 목사(강변교회 원로)의 순서로 진행됐다.

1부 예배는 홍인석 목사 인도로 찬양과 경배 이준규 목사, 기도 이의철 목사, 성경봉독 강영안 장로, 찬송 팽팍시니어 합창단, 말씀 이병준 목사, 헌금기도 이종태 장로, 헌금특송 뉴저지권사합창단, 축도 김



건국대통령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미주총회 포럼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신임 총회장 김남수 목사...이인수 박사 등 포럼

건국대통령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미주총회

건국대통령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미주총회(회장 손영구 목사)가 지난 5일 오전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려 신임 총회장에 김남수 목사를 선출했다.

이에 앞서 4일 저녁에는 뉴욕지회(지회장 안창의 목사) 주관으로 이승만 포럼과 환영만찬이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렸다.

1부 환영만찬은 뉴욕지회 사무총장 현영갑 목사 사회로 신현택 목사의 기도와 손영구 목사와 김남수 목사의 환영사에 이어 한국본부 회장 신철식 박사의 영상인사, 인보결 한국 이승만포럼 대표의 영상 축사가 있었으며 뉴욕교협회장 이만호 목사가 축사했다.

2부 포럼은 한국본부 해외본부장 문무일 이사 사회로 이화장 대표이며 이승만 대통령 양자인 이인수 박사와 자부 조해자 사모, 한국본부 사무총장 정성길 박사가 강사로 나섰다.

이인수 박사는 “나의 아버지 이승만을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일제 치하에서 어린 시절을 살았을 때 나라를 찾으실 분들은 독립운동가라고 생각했었다며 그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이 있다고 말하며 이승만 박사와의 개인적인 기억을 나누고

종국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병준 목사는 “구원”(요3:16)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택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소명에 대한 목적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택함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묻고 “무조건 ‘기도’만 고집하기보다는 기도에 대한 책임과 행동이 따라야 한다”며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성실함으로 교회의 위상을 높이고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무리가 되도록 일치단결하는 교협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이취임식은 기도 김동욱 목사, 이만호 뉴욕교협회장, 박근재 뉴저지목사회장, 축송 최은진 선생, 공로패 증정(김종국 목사, 김진수 장로) 감사패 증정(김도완 목사), 광고 박인갑 목사, 폐회 및 오찬 기도 유병우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서 회원교회 인준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김에스더 목사(개신교수도원교회), 유윤서 목사(예수동행교회, KAUPC), 김상웅 목사(뉴저지예수교회, C&MA), 권왕희 목사(주은혜교회, C&MA)가 신임회원으로 인준 받았다.

(유원정 기자)

이 대통령의 국가관과 기독교정신을 소개했다.

이날 이인수 박사가 쓴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간단한 책자도 배부됐다.

정성길 박사는 “이승만 운동을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이승만기념사업회를 소개하고,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한국의 현실을 언급하며 ‘신보수운동’에 대해 소개했다.

정 박사는 “신보수운동은 투철한 신앙심이 바탕된 이승만 건국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라며 “그 시작에 미주총회가 선두에 서서 기도와 단결과 인내로 나가주기”를 당부했다.

포럼 후 뉴욕장로성가단의 특송이 있었으며 김명옥 목사의 만찬기도로 식사와 교제가 시작됐다.

이튿날 총회는 한국본부와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시애틀, 플로리다, 하와이 등 지회에서 총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동 기념사업회 뉴욕지회는 매월 세미나와 이승만박사 탄신기념, 서거추모 행사와 바른 역사와 안보관계 포럼, 기금마련 골프대회 및 음악회, 차세대대를 위한 이승만건국정신 계승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새 회장에 김그레이스, 부회장에 김형순

에틀랜타한인교역자사모회 2017 정기총회

에틀랜타교역자사모회(회장 박경순)가 지난 11월 27일 실로암한인교회(담임 신윤일 목사)에서 2017

정기총회를 열고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했다.

이날 선거는 관례에 따라 부회장인 김그레이스 사모가 신임회장에 선출됐으며, 부회장(총무겸임)에 김향숙 사모가 선출돼 2018년 한 해를 이끌게 됐다. 이외의 서기 및 회계 등 임원들은 12월 18일 월레모임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김형순 사모의 인도로 김정숙 사모가 기도한 뒤, 장숙 사모가 시편 34편 12-14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진 회무처리 후 사모회 회원들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회원들과 목회자들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한 뒤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기사제공: 에틀랜타교역자사모회)



에틀랜타교역자사모회의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앞줄 가운데가 새회장 김그레이스 사모.

OC교협 신임회장에 이서 목사 선출 정총... “어려운 목회자 돕고 복음전파에 힘쓰겠다”

오렌지카운티기독교 교협회의회(회장 이호우 목사) 2017년 정기총회가 11월 28일 오전 10시30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은혜채플에서 열려, 신임회장에 이서 목사(미주비전교회 담임)를 선출했다.

신임 회장 이서 목사는 “잘 섬기고 싶다. 어려운 목회자들을 돕고 전 세계 복음전하는 일에 힘쓰고 싶다. 교협회장을 하면서 불같은 열정으로 주님 의지하고 목회자들과 커뮤니티, 많은 나라에 좋은 영향을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호우 목사 사회로 시작된 총회는 임의적 목사 기도로 시작, 회원점명 개회선언이 있었다. 이어 월차보고, 서기보고, 사역보고, 감사



OC교협총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보고, 회계보고 순으로 진행했으며 이서 목사를 회장으로 추대하고 27대 교협임원소개가 있었다.

임원소개 시간에 수석부회장으로 추대된 송규식 목사가 신상발언을 요청하고 수석부회장직을 사퇴했다.

이날 총회는 이서 목사 기도로 마쳤다.

한편 총회가 열리기전 드린 개회예배는 박재만 목사(부회장) 사회로 시작, 최정자 목사(분과위원장)

<박준호 기자>



사우스케이한인목사회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사우스케이목사회 신임회장 안병권 목사 정기총회, “손 맞잡고 공감대 형성하는 목사회로”

사우스케이한인목사회(회장 윤목 목사) 2017년 연말 총회가 지난 3일 톨링힐즈에스테이트 소재 한인소망교회(담임 윤목 목사)에서 1부 예배, 2부 총회로 열렸다.

총회는 윤목 목사 사회로 재정보고 및 결산, 회장 인수인계가 이어졌다.

사우스케이한인목사회의 회칙이 정한 대로 2017년 총무였던 안병권 목사가 2018년 회장직을 승계했다.

안병권 목사(가나교회 담임)는 회장 당선인사에서 “포도나무는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심어야 하기 때문에 경사진 곳에 심겨진다. 그래서 뿌리가 약해서 뽑혀지기 쉽다. 그러나 뿌리가 서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잘 뽑혀지지 않는다. 사우스케이 지역의 교회들도 서로 손

을 맞잡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목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총회 후에는 사우스케이목사회가 준비한 경품 추첨과 웃놀이를 통해 한 해 동안 목회에 정진한 목사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안병권 목사 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에서 윤목 목사는 ‘가장 늦게 온 자가 받은 큰 은혜’(마 20:6-7)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안병권 목사의 광고에 이어 최학량 목사(새창교회 원로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사우스케이목사회는 매달 첫째 주일이 지난 수요일 오전 8시에 기도모임을 갖고 있다.

▲문의: (310) 986-9797 (기사제공: 사우스케이한인목사회)



나성중앙UMC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에서 루스코러스와 루스챔버콰이어가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고있다

교회설립 47주년... “주님 경배의 시간” 나성중앙UMC 크리스마스 칸타타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담임 조승홍 목사)는 교회설립 47주년을 맞아 12월 3일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개최했다.

이날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은 USC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을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는 루스코러스와 루스 챔버오케스트라(무지디렉터 다니엘 김)가 출연해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BWV 248) 'Ich Steh'an deiner Krippe'n heir', 베토벤의 'Kyrie from Mass in C Major', 헨델의 메시아 중 'Comfort Ye and Every Valley', 'For Unto Us a Child is Born', 'Glory of God' 등을 불렀다.

또한 베이스 권영대가 게스트 솔리스트로 참여해 음악회를 더욱 아름답게 빛내주었다.

조승홍 목사는 “LA 다운타운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비전으로 시작된 저희 나성중앙UMC는 올해로 47주년을 맞이했다”며 “이번 음악회는 한인만이 아닌 여러 인종의 연주자들이 화음을 이루는

가 성경봉독했으며 아리랑합창단(지휘 줄리김)과 이은수 목사가 특송했다.

이러 바움덕 목사 ‘알파와 오메가’(계22:12-13)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정영수 목사(증경회장)가 축도했다.

이어 열린 내빈소개와 인사는 조현영 목사(수석부회장) 사회로 시작됐으며 한기홍 목사(증경회장)와 전준홍 장로(후원이사장)가 환영사를 전했다며 2018 부에나팍 시의회에 입후보한 박영선 변호사가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용인 비전성경교회 담임으로 부임하는 신현철 목사에게 공로패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27대 OC교협임원 명단이다.

△회장 이서 목사 △부회장 박재만(기회), 조형수(영성), 이창남(선교), 박영일(신학), 이태중(교육), 박경일(친교), 평신도연합회 2018년 회장(평신도), OC여성목회자회 2018년도 회장(여성), OC장로협의회 2018년도 회장(장로) 여성목회자회 회장.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LA사랑의교회 성탄 뮤지컬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성 목사)가 주최하는 성탄 뮤지컬이 'All about that Baby'라는 주제로 12월 25일(월) 성탄절에 열린다. 시간은 오전 10시.

▲문의: (909)802-0580 김숙영 전도사

회계 담당자를 위한 퀵북 강좌

남가주 한인중앙 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가 주관하는 사업체 및 기업 회계 담당자를 위한 실제적이고 간단한 회계처리를 위한 퀵북(QuickBooks) 무료 및 유료 강좌가 13일(수) 부에나 팍 더 소스 쇼핑센터(The Source Buena Park) 4층 세미나실(6940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에서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오전 10시-12시(무료 강좌), 오후 1시-5시(유료강좌)로 진행된다. 유료강좌 수강료는 100달러(강의 책자 포함).

▲문의: 714-393-4595(Center)

미주송도동문회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

미주송도동문회(회장 김현구)는 부부동반으로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을 9일(토) 오후 5시에 한인타운의 만리장성(988 Dewey Ave., LA)에서 갖는다.

▲문의: (310)483-4301 이은민 총무

한인가정상담소, 위탁아동 초기지원기금 모금 “마음으로 품은 아이” 후원엽서 제작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가 지난 11월 28일 '기빙투스데이(Giving Tuesday)'와 연말을 맞아 2017년 후원 엽서를 제작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매년 연말, 특별 후원기금을 모으는데 올해는 '마음으로 품은 아이(Child From My Heart)'를 주제로 정했다.

지난 2014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위탁가정 프로그램인 '동지찾기'를 통해 한인가정에서 보살핌을 받게 될 위탁아동들을 한인 커뮤니티가 함께 마음으로 품고, 이들의 초기 정착을 함께 후원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LA카운티 아동보호국은 학대나 방치, 질병, 빈곤 등의 이유로 친부모가 아이를 안전하게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아이를 아동보호국에서 보호한다. 미국에는 고아원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위탁 가정으로 보내진다.

한인가정상담소는 11월 초 이러한 내용을 담은 후원 엽서를 제작, 배포 중이며 SNS를 통해서도 알리고 있다. 특별히 비영리단체들을 돕자는 의미로 5년전 처음 시작된 기빙투스데이(11월 28일)에도 위탁아동들을 돕고 싶다는 한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이어졌다.

한인가정상담소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아시안을 전문으로 하는 위탁가정에이전시(FFA)이며, 2014년 시작된 '동지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한인 33가정이 45회에 걸쳐 위탁아동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됐다. 이중 12명의 아이는 입양돼 새 가정을 찾았다.

위탁가정 아이들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특별 후원은 올해 연말까지 이어지며, 후원 엽서는 이메일로 문의(dkim@kfamla.org)하면 받아볼 수 있다.

한편 '기빙투스데이'는 2012년 처음 선보인 움직임으로 추수감사절 이후인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에서 이어지는 개념이다. 추수감사절 이후 본격적인 할러데이 시즌이 시작되면서 주변의 불우한 이웃들도 돕자는 뜻이 담겨 있다.

후원 수표 Pay to: KFAM이며 3727 W. 6th St. #320, LA, CA 90020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것은 (213)235-4854(조앤 한 디벨롭먼트 코디네이터)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한인가정상담소 스태프들이 후원엽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남가주발달장애인을 위한 제32회 사랑의 축제에서 모든 참석자들이 흥겹게 찬양하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제 남가주발달장애인을 위한 제32회 사랑의 축제 성황

남가주발달장애인을 위한 제 32회 사랑의 축제가 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랑의 축제 조직위원회(위원장 한기홍 목사) 주최로 열린 이번 사랑의 축제는 이날 참가한 24개 장애인단체 및 교회들의 장애인들이 댄스파티 등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이종희 목사(남가주밀알선교단 단장)는 “은혜한인교회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주제로 사랑의 축제를 열었는데 참여하는 남가주 발달장애 교회와 단체들의 발달장애아동들이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서 돼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민수 전도사(남가주밀알선교단 이스트 LA 사랑의교실)는 “해마다 사랑의 축제에 참여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여주는 행사를 하는 인상을 받았다”며 “이번 사랑의 축제는 사랑의 축제의 주인공인 장애아동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 감사했다”고 말했다.

은혜한인교회 이규례 전도사의 환영인사로 시작된 1부 예배는 권상욱 목사와 찬양팀이 은혜한인교회 본당을 가득 메운 장애아동들과 봉사자들과 함께 즐겁게 찬양을 했다.

이어 전권식 장로가 대표 기도했으며 한기홍 목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했다.

(박준호 기자)

의료보험 가입 시즌, 기독교의료상조회가 주목받는 이유 별금면제 때문에 가입했다가 수만 달러의 의료비 지원 혜택 받아

지난 11월 1일부터 2018년도 오바마케어 등록이 시작됐다. 주별로 마감일이 다소 다르지만 대다수 주가 오는 12월 15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별금을 내지 않는다. 오바마케어법에 따르면 의료보험 미가입시 연소득의 2.5%나 625달러(성인) 중 많은 금액으로 별금을 내야 한다.

2018년도 오바마케어는 관련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일부 보험사들이 빠져나가 선택의 폭이 좁아졌으며, 남아 있는 보험사들도 정부 보조금 중단 등을 이유로 보험료를 올려 개인 가입자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의료보험 미가입 별금이 계속 유지되고 보험료 또한 상승함에 따라, 별금 면제도 되고 낮은 비용으로 기대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독교의료상조회(Christian Mutual Med-Aid, 이하 CMM)의 의료비 나눔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다. 별금 면제 때문에 CMM에 가입했던 한 회원은 2016년 한국 방문 중 갑작스러운 패혈증으로 입원 및 수술을 하고 6만6천여 달러의 의료비 전액을 지원 받았다.

1996년에 시작된 CMM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회원들이 회비를 모아 회원 중 의료비가 발생할 때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로 현재까지 4만여 이상의 성도들이 참여해왔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의료보험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훨씬 적은 월회비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CMM은 오바마케어 별금 면제가 되는 유일한 한인 크리스천 헬스케어 셰어링 미니스트리로, 가장 기본 프로그램인 브론즈의 경우 월 40달러의 회비로 유사시 최고 15만 달러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는다. 또한 버든 셰어링(Burden Sharing) 프로그램까지 적용하면 최고 100만 달러까지도 지원 받을 수 있다.

CMM의 가입자격은 술, 담배, 마약을 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생활하며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천이어야 한다. CMM은 의료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 방문 시 self-payer로 등록해 자신이 먼저 의료비를 지불한 다음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첨부해 본사에 청구해야

한다. 의료비 금액이 큰 경우, 미리 CMM에 연락하면 병원과의 의료비 협상을 도와준다. self-pay 환자의 경우 각 의료기관이나 병원에서 제공하는 할인 혜택이 있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 요청해서 할인을 받게 해준다.

CMM의 프로그램 종류는 병원 입원이나 수술비만 지원하는 기본 프로그램과 외래진료, 검사, 치료약, 건강검진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 총 5가지다. 모든 프로그램이 질병당 연 15만 달러까지 지원하며, 프로그램에 따라 본인부담금과 의료비 지원 혜택이 달라진다.

CMM의 장점은 ▽일반 건강보험에 비해 월회비가 저렴하고 ▽의사나 병원의 제한이 없으며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 곳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고 ▽치료 중인 회원을 위해 중보기도로 돕는다. ▽골드플러스의 경우 매년 500달러 상당의 건강검진을 제공하며 ▽연중 수시로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CMM은 높은 의료비로 힘들어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의료비 나눔 사역의 의미와 좋은 혜택을 알리기 위해, 지난 10월 26일부터 새 회원을 소개하면 회비 크레딧을 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소개한 새 회원이 2달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

하면, 새 회원의 1개월 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비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는 소개 보상 캠페인이다.

CMM 관계자는 “CMM은 의료비 나눔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단체다. 2002년에 책정된 월회비를 한 번도 인상하지 않고 수천 만 회의 의료비 지원을 감당해 오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 CMM은 의료비 지원뿐 아니라, 크리스천지원 지원팀을 통해 여기저기 못한 질병과 사고로 치료 중인 회원들을 위해 기도를 요청하고, 매주 전 직원이 참석하는 예배에서도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크리스천 공동체다. 앞으로 CMM이 미주 한인 크리스천을 중심으로 타민족 크리스천들도 함께 섬기며, 한인 2, 3세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기업을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1976년에 설립된 로고스선교회는 문서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크리스찬저널과 성경의 원리에 따라 의료비 나눔 사역을 실행하는 기독교의료상조회, 그리고 삶에 지친 성도들의 영육간 회복을 위해 마련된 로고스 하우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CMM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1-773-777-8889나 www.cmmlogos.org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대림절’ ...경건한 구제의 시간으로

‘예수 오심’ 기다림의 시간, 한국교회 다양한 기도·나눔 행사

거리마다 오색 전등이 달린 크리스마스 트리가 속속 세워지고 있다. 백화점이나 크고 작은 상점들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며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한다. 술잔을 들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흥청망청, 각종 탈선과 범죄가 많은 계절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독교인에게 성탄절 전 한 달은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待臨節) 기간이다. 대림절은 교회에서 성탄절 전 4주간 예수의 성탄과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다. 올해 대림절 첫 주일은 3일이다.

일부 교회와 가정에서는 대림절 기간에 초를 밝힌다. 1842년 독일의 요한 비헤른 목사가 고아원 아이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전하며

초를 켜기 시작한 게 시초다. 촛불을 밝힌 뒤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구간의 구유에 오신 참 뜻을 묵상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는 최근 ‘2017 대림절 묵상집’을 출간했다. 묵상집에는 말씀과 찬송, 묵상 글,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 오늘 의 실천 사항이 제안돼 있다.

대림절의 의미는 글자 그대로 예수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절기다. 이때 기다리고 바라는 내용은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리고 환영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보다 장차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담고 있는 것이 대림절의 더 큰 의미이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그동안 대림절의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았

다. 그런 이유일까. 예수님이 주인 이어야 할 성탄절이 연인들의 날, 연말 파티를 여는 날로 변모했다. 기독교가 주도해야 할 성탄문화 대신 각종 세속적 축제 분위기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들은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목회자들은 상업적 성탄문화 속에 자칫 들뜨기 쉬운 대림절 기간, 차분하고 경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제신학교육연구원 목회연구소장 김한경 목사는 “고대 교회에서는 대림절, 특히 성탄 직전에 금식을 하는 관례가 있었다.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 속에 기다리는 ‘기대의 시기’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 주님의 탄

생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을 묵상하고 은혜를 기대하면서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이라고 말했다.

목회자들은 이와 함께 소외 이웃을 돌보는 구제의 시간으로 보내자고 제안했다. 예수 오심의 참된 의미는 불우한 이웃을 보살피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림절 기간 이웃을 돕는 교계와 성도들이 줄을 잇고 있다.

서울 세검정지역교회 목회자들은 연말 불우이웃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하기 위해 마음을 모으는 중이다. 지난해에는 햅쌀 10kg 100포를 소외계층에 전달했다.

북한구호 및 선교단체인 통일선교아카데미는 북한 어린이들에게 겨울나기용 방한화를 전달한다. 북한 나진·선봉 지역에 있는 재미교포 신발공장에서 방한화를 구입, 인근 고아원 및 보육원에 보낼 예정이다.

대한성서공회, 올해 성서 600만여부 보급 해외 118개국 210개 언어로

대한성서공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성서회관에서 제128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올해 성서사업 보고 및 임원 선임 등을 진행했다.

권의원 사장은 “1년간 118개 나라에 210개 언어로 총 600만3462부, 1억7000여만부를 제작, 보급했다”고 보고했다.

올해에도 여러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 보내기 운동에 참여했다. 서울 도립교회(정명철 목사)는 지난 7월 카메룬에 프랑스어 성경 1만1904부를 후원했다. 이만영 장로는 3년간 1억원의 헌금을 도립교회를 통해 공회에 기탁했다. 이슬람의 공격에 공회에게 기탁했다. 이슬람의 공격에 공회에게 기탁했다. 이슬람의 공격에 공회에게 기탁했다.

르완다에 보냈다. 르완다성서공회에서도 보급할 성경이 없어 안타까워 회를 열고 올해 성서사업 보고 및 임원 선임 등을 진행했다.

권의원 사장은 “올 한 해 한국교회와 기관, 개인들이 33억3000여만원의 헌금을 모아 성경 보내기 사업을 지원해줬다”며 “신년에는 허리케인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푸에르토리코, 멕시코 등의 성서공회, 이집트와 요르단 등 아랍권 성서공회들을 지원하러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성서공회 교단 대표로 박태식 신부가 선임되고, 기독교한국 루터회의 남상준 목사가 보선됐다. 또 교단 대표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황순환 목사, 예장대신 이정원 목사가 선임됐다. 이정은 김경원 이용호 목사, 이만영 객청영장로는 찬성회원(후원금을 내는 특별회원) 대표가 됐다.

신천지의 가정파괴 ·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 유포

대법원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

한국의 주요 교단들이 대표적 이단 단체로 규정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가정파괴,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 유포, 교주의 재림예수 행세 등이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천지의 반사회적 행태를 상당부분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으로 향후 이단·사이버 단체와의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권순일)는 지난 23일 신천지가 CBS의 8부작 다큐멘터리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2015년 3-4월 방영)의 일부 내용을 문제 삼아 제기한 손해배상 등 상고심에서 신천지 측 상고

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신천지는 2015년 6월 CBS 방송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CBS와 방송에 출연한 이단 전문가 3명을 상대로 3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2심에서 신천지 측이 문제 삼은 30가지 내용에 대해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일부에 대해서는 보도 내용의 진위와 무관하게 반론보도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법원은 “소송 총비용 가운데 신천지와 CBS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신천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CBS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해당 방송에 등장한 신천지의 가정파괴, 교주의 재림예수 행세 등 21가지 표현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이들의 인성을 파괴하고, 패륜아를 만들며, 이혼을 장려해 가정을 파괴했다”는 방송 내용과 관련해 법원은 신천지 교인인 자녀들이 신천지로부터 휴학이나 직장 사직, 가출 등의 권유를 받았다고 진술하거나 부모를 ‘아줌마’ ‘사탄’으로 부른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송 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는 기성교회 관점에서 정통 교

단 총회 보고서에 근거해 신천지 주요 교리를 해석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영생 재림예수 행세’ 부분과 관련해서는 신천지 교인들이 상담사와 대화하며 “자신은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이만희도 죽지 않는다”거나 “이만희가 죽을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이만희가 재림예수 행세한 것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만국회의가 위장행사’ ‘사이버 종교, 반국가적, 불법단체’ ‘가출조장, 천문을 끊게 만드는 신천지’ 등 8가지 대목에 대해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반론보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CBS의 변호를 맡은 박기준(법무법인 우암)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앞으로 신천지와 관련된 소송들의 구체적인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에이즈 예방행사에 동성애자 난입 ‘소란’

‘동성에 혐오가 에이즈 확산시킨다’ 과장된 논리 펴

한국가족보건의협회와 대구광역시 약사회, 청소년보호연맹 광주지부, 에이즈퇴치연맹 제주지회 등이 청소년의 에이즈 예방을 위해 1일 국회에서 개최한 ‘디셈버퍼스트’ 행사에 동성애자들이 난입해 소란을 피웠다.

한국게이단체 ‘친구사이’의 이종걸 사무총장 등 10여명의 동성애자들은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엔에스 대표변호사의 대화사 후 갑자기 강단으로 뛰어나가 행사를 잠시 중단시켰다.

한국가족보건의협회가 청소년의

에이즈 예방을 위해 1일 개최한 ‘디셈버퍼스트’ 행사에 동성애자들이 난입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

이어 ‘에이즈 혐오는 HIV 감염인 인권과 함께 갈 수 없다’ ‘감염인 관리가 아니라 에이즈 혐오가 문제다’ ‘에이즈 치료비 운운하지 말라. 치료는 최선의 예방이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펼치고 “동성애 에이즈 혐오 중단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15분 넘게 소리를 치며 행사를 일시 중단시켰다. 장내가 혼란스러워하자 국회 청원경찰이 저지에 나섰고 주최측은 1분 발언기

회를 보장함으로써 소란을 잠재웠다.

1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디셈버퍼스트’ 행사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던 한 에이즈 감염자가 발언기회를 얻고 “혐오가 에이즈를 확산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이즈 감염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시위자는 마이크를 잡고 “동성애자를 반대 성욕자로 취급하는 혐오가 오히려 에이즈를 확산시킨다”며 혐오논리를 펼쳤다.

감염자는 “혐오와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는 예방법은 맞지 않다”면서 “에이즈 감염의 지름길은 감염인 인권과 에이즈에 취약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고 외쳤다.

이날 동성애자들의 소란을 정리한 한호관 건강간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는 “동성애자들과 에이즈

감염자들은 국내 에이즈 환자의 다수인 동성애자와 그 감염경로를 알리면 혐오논리를 펼치며 국민들의 귀를 막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처럼 공식 행사장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는 행위가 오히려 다음세대를 동성애로부터 지키려는 학부모들에 대한 혐오 폭력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등 23개 학부모 단체 회원과 성일중 자유한국당 의원, 조배숙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SDC 인터넷서널스쿨 12학년 송강현(19군)은 “에이즈로부터 우리 청소년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성적 분별력을 위해 힘써주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인사했다.

기독교, 사회봉사한 만큼 호감 못 얻어

한교봉 출범 10주년... 한국교회 사회봉사활동 설문조사

국민 3명 중 1명이 기독교를 가장 적극적으로 사회봉사하는 종교로 꼽았다. 기독교는 금전이나 재능, 물품 기부 등에 있어 천주교나 불교, 무종교보다 참여율이 높았다. 하지만 기독교가 사회봉사활동을 전도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아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회봉사단은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범 1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엔컨리서치(대표 지용근)가 지난 8월 16-19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했다.

‘사회봉사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종교는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기독교(29.2%)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천주교(20.2%) 불교(3.8%)가 뒤를 이었다.

기독교인은 사회봉사 목적의 기부활동에도 가장 적극적이다. 금전 기부(61.4%) 능가기부(29.3%) 물품기부(21.3%)에서 참여율이 제일 높은 종교로 파악됐다. 2위는 천주

교, 3위는 불교였다. 전체 응답자 중 사회봉사 목적의 기부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은 63.9%로 파악됐다. 봉사 활동 참여 경험은 경제력 수준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응답자 중에서 특히 기독교인(44.4%)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기독교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해 ‘호감간다’고 응답한 경우는 45.8%였다. ‘호감가지 않는다’는 응답은 42.6%로 호감간다는 별 차이가 없었다. ‘잘 모르겠다’는 11.6%였다.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20대와 30대 응답자 사이에선 호감보다 비교 응답이 더 높다는 점이다. 20대는 비교감(47.3%)이 호감(34.2%)보다 조금 높았고, 30대의 경우 비교감이 53.5%로 호감(38.3%)보다 훨씬 높게 조사됐다.

국민들은 기독교의 사회봉사활동에 호감을 갖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어서’(43.9%)를 1순위로 꼽았다. 반면 한국 교회의 사회봉사활동에 호감이 가지 않는 데 대해 ‘전도 수단으로 삼아서’(65.2%)와 ‘보여주기로 활동해서’(24.7%)라고 답했다. 특히 주목

할 부분은 종교가 없는 응답자의 과반수(53.5%)가 기독교의 사회봉사활동에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목이다. 봉사 실패를 돌아보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 지점이다.

전반적으로 사회봉사활동을 가장 잘하는 종교는 천주교(24.4%) 기독교(21.2%) 불교(3.8%)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30%, ‘비슷하다’는 20.6%였다. 천주교가 사회봉사를 가장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들은 ‘가장 순수하게 봉사하는 종교라서’(55.2%)를 1순위로 꼽았다.

‘사회활동이 필요한 분야’는 아동·청소년(24.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인(22.6%) 소외계층(16.9%) 장애인(14.9%) 보건의료(7.1%) 가정·여성(6.3%) 지역사회(5.9%) 다문화가정(1.9%) 북한·탈북민(0.2%)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사회봉사를 교회 성장의 도구로 삼지 말고 사회 속에서 교회의 공공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홍식 서울대 교수는 “한국교회의 사회봉사는 전도 목적 혹은 보여주기로 인식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양적 확대보다 질적 향상을 통해 실질적 도움을 주는 진정한 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우 강남대 교수는 “교회의 모든 자원을 공공자

원으로 여기고 지역사회를 기독교의 이웃 사람으로 순수하게 섬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지붕 아래 한국교회 연합 ‘새틀’ 짰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출범... ‘장·감·성·순·침’ 교단 사상 처음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제1회 총회가 개최됨을 선언합니다.”(이성희 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장)

한국교회 30개 주요 교단이 동참하는 한교총이 5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1회 총회를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장·감·성·순·침’(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이 교회연합기구라는 한지붕 아래 모인 건 처음이다.

한교총 총회 개최 의미=예장합동 통합 대신 고신 합선,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여의도순복음,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등 핵심 교단 총회장과 대의원 등 120명은 이날 총회에서 한교총 정관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해 8월 시작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논의는 16개월 만에 현지 교단장 중심의 연합기구라는 ‘결실

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교총 공동대표회장에는 전계현(예장합동) 최기학(예장통합) 이영훈(기하성 여의도순복음) 총회장, 전명구 기감 감독회장이 선출됐다. 삼일회장은 유종희(예장대신) 안희목(기침) 박삼열(예장합선) 김영수(나사렛) 조광표(예장개혁) 정동균(기하성 서대문) 김영희(예장합동중앙) 총회장이 선임됐다. 현직 교단장들이 리더십을 갖는 구조로, 교단 뜻과 상관없이 일부 인사에 의해 연합기관이 좌지우지되던 구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한교총은 핵심 사업으로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보완책 수립, 평창 동계올림픽 기독교 봉사단 운영, 동성애 동성혼 대응, 재해지역 구호 지원활동 등 4개 사업을 선정했다.

한교총 총회는 한국연합기구의 ‘지각변동’이라는 면에서 적잖은 의미가 있다. 한교총에서 활동하는 교

단들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한교총의 남은 과제는=한교총의 성패는 향후 사업을 통해 대정부·대사회적 신뢰도를 얼마나 높이는냐에 있다. 한교총 대변인은 말고 있는 변찬배 예장통합 사무총장은 “한국교회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공교로 중심의 연합운동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한교총은 앞으로 종교인 과세 문제를 매끄럽게 마무리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봉사단을 운영할 것”이라며 “동성애 동성혼 등 당면한 사회 이슈에 적극 대처하며 재해지역 지원활동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호를 열고 다른 연합단체와 대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교총은 이날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이라는 단체명을 사용하려 했다. 그러나 한기연 불참을 선언했던 한교연이 돌연 ‘한기연’이라는 명칭으로 바뀌 사용하면서 단체명을 ‘한국교회총연합’으로 긴급하게 변경했다. 사무실은 한국기독교교회관 912호를 사용한다. 총회에서는 최상규(국민일보) 한용길(CBS) 김관상(CTS) 사장 등이 축사를 했다.

교도소 선교칼럼 (33)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육, TPPM대표



용서와 섬김

파밀라는 목소리가 부드러우며 조용하고 평안한 느낌을 주는 50대의 재소자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부모가 친구들에게 팔려 다니는 삶을 사는 과정에서 4살 때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삶은 파밀라에게 혼동과 고통을 주었으며 그녀의 형제들 역시 모두 그러한 일을 당하며 성장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이혼하고 재혼을 한 후에는 파밀라의 의붓아버지가 그녀에게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녀가 16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그러한 고통 속에서 살지 않고 학교에 가서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의붓아버지는 법에 처벌을 받아 4년간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출감한 후, 파밀라의 어머니는 그와 다시 살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도 그와 살고 있습니다.

분들을 용서하지 못해 아픔과 고통 속에서 자살충동에 시달리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만일 하나님께서 그녀가 부모님을 용서하도록 돕지 않으셨다면 아마 지금 살아 있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고 간증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파밀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상처 받은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픈 과거는 상처 받은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방법은 고통 하는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 들어주며 그들이 성경을 읽도록 하고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파밀라의 삶이 부서지고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서 살면서도 그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던 그녀는 자신의 부모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병실에서 죽어가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왜 자식들을 팔아서 그렇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당시에 돈이 필요했었기 때문이라며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딸의 삶에 큰 상처를 주었다는 말에 그는 파밀라에게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 또한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파밀라도 아버지를 오랫동안 미워하고 화를 품고 산 것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도 그녀를 용서하므로 그녀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되어 마음에 평안을 찾았습니다.

파밀라는 어제 교도소에서 신장에 암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에 실망치 않고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평안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며 보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삶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파밀라는 교도소의 병실 안에 있으면서도 기도가 필요한 재소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 그들에게 기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는 조그만 장구에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파밀라는 다른 재소자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의 평안과 아름다움에 대해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저 또한 신실로 목격하기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교도소 선교를 하면서 파밀라 같은 재소자들을 보며 영적 부흥을 보고 있습니다. 거의 사형선고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암 선고를 받고도 웃음을 잃지 않고 다른 재소자들을 돕고 있는 파밀라를 위해서 그녀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도소에서 변화되어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를 만나는 것 같은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저는 세계 교도소 사역을 맡겨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파밀라와 그녀의 어머니 사이에는 아직도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자신은 자식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파밀라를 성폭행한 의붓아버지와 아직도 같이 살고 있다는 것도 파밀라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어머니는 딸에게 조금도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밀라는 더 이상 어머니와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를 계속 미워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그녀는 어머니를 용서하고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녀가 더 이상 과거에 얽매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부모님을 용서했으므로 마음에 평안을 찾았지만 몇 년 전만해도 파밀라는 그

yonghui.mcdonald@gmail.com

건강 길라잡이



이영익 내과전문의

위장 출혈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면 꼭 의사와 상담해야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면 일단은 주의 하고 그 원인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흔히 배변 후 피가 보이거나 화장지에 피가 묻어 나오는 경우 먼저 치질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외치질인 경우에는 항문 밖에서 보이거나 만져지지만 내 치질인 경우는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렵다. 치질이 없는 대변에 피가 묻어 나오거나 검은 변이 나오는 경우는 반드시 정밀 검사를 통해서 출혈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40대 중반의 독신 여성 K씨는 대형 백화점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평소 위장 장애로 고생하던 K씨는 1주일 전부터 피곤하고 현기증을 느

꼈다. 이를 전부터는 계단을 올라갈 때 숨이 차서 중간에 한번은 난간을 잡고 쉬어야 했다. 평소 직장에서도 일중독으로 평가받고 있던 K씨는 직장 동료로부터 너무 창백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을 찾아왔다.

K씨와 면담을 통해서 K씨가 평소 위장장애를 앓아왔고 이 때문에 자주 속이 쓰린 증상에 시달렸으며 최근에는 속이 쓰린 정도가 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 대변 색깔이 검은색으로 변했고 냄새가 심했다고 했다. 몇 주 전에 직장 동료가 외국 여행에서 사온 차를 선물 받아 최근에 계속 마셨다고 했다.

K씨는 검진 상 혈압은 수축기 100mmhg, 이완기 60mmhg였고 맥박

은 분당 105회로 조금 빠른 편이었다. 안구가 창백해 보였고 심장 청진상 맥박이 빠르고 심잡음이 들었다. 혈액 검사상 혈색소치가 7.0g/dL(정상여성 12.0g/dL이상)로 빈혈이 아주 심했다.

K씨는 상부 소화기 출혈로 진단받고 일단 병원에 입원했다. 응급 수혈 치료를 받고 나서 내시경 검사상 출혈성 위궤양 진단을 받았고 지혈 치료를 받았다. K씨의 대변색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어지럽고 숨찬 증상은 사라졌다.

장관계에서 출혈하는 경우는 혈변(대변에서 붉은 피가 섞여 나오는 것)과 흑변(변이 검게 나오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심이지장을 기준으로 상부(주로 위와 십이지장 상부)에서 출혈하게 되면 혈액이 대변으로 섞여 나오는데 배변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적혈구가 산화되어서 변이 검게 보이는 흑변이 되고 심이지장 하부에서 출혈하면 붉은 혈변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출혈량이 많은 경우 출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상부 위장관에서 피가 내려오도 혈변을 볼 수 있고 대장암과 같이 출혈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하부 위장관에서 출혈을 하더라도 대변색이 검다.

일단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면 치질과 같은 양성질환도 있지만 위암이나 대장암, 궤양성 위장관계 질환등과 같은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5면에서 계속)

이민 교회는 어떠한가? 성도들의 형편에 맞추어 예배를 점점 폐하는 시대, 말씀공부로 성도들을 붙들어 두기에 부담스러워하는 시대를 지나간다. 그러나 그러한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부흥은 오직 한 가지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에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구름 때 같은 성도가 모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크리스탈처럼 구경꾼들 관광객들만 붐빈다면 교회가 소하는 장소도 아니고,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가르치고 배우지 않으면 변질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학당을 얘기하는 것이다. 거기 보면 베로아 사람들이 나온다. 베로아 사람들이 누군가? 신사라고 했다. 다 고위 공무원들, 머리가 좋은 박사들이다. 이 사람들이 베로아에 모여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길 기뻐하고 저녁마다 모여서 떡을 떼기에 쉬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면 가르치지 아니하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변질되게 되어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일곱 교회가 나온다. 그 일곱 교회 중에서 정말 첫 사랑

을 잊어버렸느냐? 왜 미지근하냐? 왜 온전히 섬기지 못하냐? 등등 교회의 변질에 대해 책망을 받았는데, 한 교회만 칭찬을 받는다. 어떤 교회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치는 교회였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어 나가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 중 가장 중요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교회이다.

신약 성경과 구약성경에 시대적으로 나누어 볼 때 회당사역이라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지으신 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스킨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복원되었다. 그리고 다시 파괴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다시 그 성전이 헤롯대왕에 의해서 세워졌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였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되었다.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해롯에 의해 복원되기 전에 회당이라는 것이 세워졌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다. 회당은 동네방네 생긴 것이다. 이 회당에서 말씀이 증거 되고 전파되고 가르치기에 힘쓰는 곳이 되었다. 오늘날 이 회당이 교회의 모형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만큼 회당이 곳곳에 세워졌던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도 했다. 주님도 회당에 가서 가르치기에 힘쓰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회당이 세워진 것을 보면 알겠지만 회당의 개념이 성전 개념보다 강할 수밖에

없다. 한번 예배드리는 성전의 개념보다 회당은 날마다 밤마다 낮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그들 사회 속에 교육시설도 있었고 문화시설도 있었고 생활공간도 되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던 것이다.

이 교회가 바로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던 것이 회당 중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본질이 그대로 유지되었을 때 그 뒤에 사도들이 세워지고 사도들에 의한 제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많이 나타난 제자들에 의해서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교회의 변혁, 세상의 소망

교회의 변혁은 세상의 소망이다.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빛을 비추어라 하여도, 빛이 되지 못하면 의미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 소금의 역할을 하고 싶어도 짚맛을 잃어버리면 불가능한 것이다. 먼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 말씀의 충분한 가르침과 이로 인한 성령의 역사로만이 변화된 교회, 개혁된 교회가 세상 앞에서 주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될 것이다.

davidnjeon@yahoo.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45 금요기도: 오전 9:45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성령강림: 오전 10:00(화,토) Tel: (718)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kccb.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사백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6: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yahoo.com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준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04 162 St., #2F,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5:45(월-토)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김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www.kapcc.org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월-토) http://www.cpcpcny.org Tel: (718)279-2757, 2758, Fax: (718)279-1823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461-7835, Fax: (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ioch.com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 3주)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55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1부 오전 7:30분 주일2부 오후 1:50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찬양예배 오후 3: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주비성도교회 담임목사: 이규분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성경기도: 오후 5:00 영양예배: 오후 1:00 Tel: (718)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me Rd., Manhasset, NY 1103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org	퀸즈한인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NCF영어: 오후 1: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cny.org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입니다...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14-631-1788 AV. CARA 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기도회: 저녁 9:00 714종교기도회: 아침 7:40 월, 목, 중, 고통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선교대학 학생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 2, 3, 부 스페인어 설교) Tel: (595)211-574-985 E-mail: hanjkn@hotmail.net Cervantes NC, 1001, Asuncion-PARAGUAY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주일3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30(영양)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선교 논단



강성철 선교사 (GMS브라질 남부지부장)

다음세대 리더 발굴 및 훈련과 파송의 중요성 (상) -중남미선교를 이어갈 MK 및 PK 선교동력화

1. 성경에서 본 1세와 1.5세, 2세들의 선교적 관계

선교는 오직 성령이 임하심을 받은 사도들과 신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이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행1:8. 마28:19-20).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열 두 사도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다. 그들은 먼저 동포들을 전도했다 이 시기가 사도행전 1-12장에 기록된 대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주도한 기간이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행 2:2)"의 표적이 있었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행1:8) 베드로가 설교하니 세계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 중 3천명이 세례 받고 기독교인이 되어 120명으로 시작한 예루살렘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그 후 3천명이 5천명으로 교회가 성장하였다. 이때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였다. 신자들이 모이자 예루살렘교회에서는 사도들을 파견하여 교회를 세웠다. 교회가 왕성해갈 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을 따른 선교수행보다는 조직의 방대함속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집사를 세우고 사역을 나누어 문제해결에 힘을 기울였다. 선교명령보다 예루살렘교회 부흥에 힘쓸 때 교회 핍박이 일어났다. 스테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대박화가 시작되었고 선봉에 선 사울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구부와 안디옥 등지에 디아스포라 교회가 서게 되었다. 그런데 흩어진 핍신도들에 의해 세워진 디아스포라 안디옥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안디옥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다. 그리고 이들이 선교여행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다. 주의 길게 살펴보면 문맥상 뚜렷이 드러나는 것은 이것이 두 사람의 개인적 사역이 아니라 안디옥교회가 이 두 사람을 통하여 광범위한 로마제국 각처에 교회를 세운 것이다. 1세대 교회인 예루살렘교회나, 1.5세대와 2세대, 그리고 이방인들이 함께 세운 안디옥교회나 똑같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선교를 수행하였고, 성령의 권능으로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므로 새로운 신자들을 낳고 각 지역에 교회를 세워갔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교회적 사명수행 과정 중에서의 세대 간 역할이다. 예루살렘교회는 1세대 교회로 선교사역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라는 1세대 사도들에 의해 진행되었다(행1-12장 참조). 반면 안디옥교회는 2세대 교회로 그 선교사역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라는 2세대 사도들에 의해 주도되

었다. 1세대 선교를 주도한 베드로와 요한은 둘 다 유대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다. 이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선교 대상지였다.

반면 광활한 로마제국 곳곳을 무대로 한 2세대 선교를 주도한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 밖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의하면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인이고, 21장 29절에 의하면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소개한다. 이들은 "땅 끝"이 선교 대상지였다. 그들의 사역이 더 이상 유대인 밀집지역으로 국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세대 교회인 예루살렘교회의 선교사역은 베드로와 요한으로 유대 출생 2세대 교회인 안디옥교회의 선교사역은 바나바와 바울로 유대 밖 출생 초대교회는 1세대와 1.5세, 2세가 하나 되어 동일한 복음 공유하며 선교

여기서 주목할 것은 2세들에 대한 1세대의 영향이다. 사도행전 4장에서 "바나바"라는 이름은 사도들이 구브로 태생 레위인 요셉에게 붙여준 별명이었다. 또 사울이 회심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맞아 이끌 수 있도록 교방 역할을 한 것도 바나바였다. 그 후 안디옥교회가 서자, 예루살렘교회는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한다. 여기에서 바나바는 1세대와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다른 2세인 바울은 어떤가? 갈라디아서 1장 18-19절을 보면 그는 예루살렘에서 사도 베드로를 만나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 또 2장9절을 보면 그는 사도 요한과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 그도 1세와 가까웠음을 확인하게 하는 대목이다. 바울은 2세대와 가까웠지만 1.5세와도 가까웠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할 때, 그를 결정적으로 도운 아나니아는 1.5세대였다. 그는 바울에게 예수님을 만난 것을 증언하라고 선교를 권면한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고 권한다. 이것은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영향을 받은 증거이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권면한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과 동일하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행2:21).

아나니아는 복음을 아바 사도들로부터 들었을 것이다. 그 후 다메섹으로 이민을 간다. 그곳에서 사도들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지 않은 2세에게 1세대가

선포한 동일한 복음을 선포한다. 1세대가 전한 것이 1.5세를 통하여 2세에게 동일하게 선포된 것이다. 1.5세를 통하여 복음을 받은 2세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10:13).

성경에 나타난 1세, 1.5세, 2세의 선교적 관계는 2세대 대표 바울과 바나바와 1세대 대표 베드로와 요한이 친교의 악수를 나누는 친밀한 관계였다.

바나바는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1세대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었을 것이다. 그는 사도행전 초반부터 사도들과 친하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울은 1.5세인 아나니아에게 복음을 처음 들었다. 그리고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1세대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것이다.

2. 1세, 1.5세, 2세들이 하나 되어 종말에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

1세와 1.5세와 2세의 정서와 문화의 정체성은 각기 매우 다르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 되어 선교 수행할 수 있는 길은 서로의 정서와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1세와 1.5세 그리고 2세가 하나 되어 선교수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동일한 복음이었다. 즉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복음을 공유하고 나누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1세대 베드로와 2세대 바울이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한 것이다.

"성경에 이르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

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를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이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롬10:11-15).

3. 1.5세 및 2세 선교사들이 복음전파에 훨씬 유리하다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교회가 중심이 되어 펼친 1세대보다 안디옥교회가 중심이 되어 펼친 1.5세 및 2세대들의 선교가 문화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훨씬 더 광범위하였다. 2세대에 이르러 디어 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된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이것은 1.5세 및 2세대들이 1세대에 비해 훨씬 더 광범위한 활동을 펼치기가 가능한 문화적-지역적 상황을 수용하여 복음을 전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이들이 당시 로마제국의 문화와 상황 속에서 태어나 자랐기에 로마제국 전체를 선교의 무대로 삼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유의할 것은 1.5세 2세들이 영적 정체성을 확립하였다는 사실이다.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과의 관계이다. 1.5세 및 2세대가 선교 정신이 뚜렷하면 올바른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kangsungchuel@gmail.com



세계한인기독교연립 정기총회 및 제3회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세계한인기독교연립 신임회장에 임승래 발행인 정기총회 겸 제3회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

세계한인기독교연립회(회장 장영춘 목사)가 지난 4일 오전 11시 JJ그랜드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제 3회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2018년도 본 협회를 이끌어갈 회장 임승래 크리스천타임즈 발행인을 선출했다.

조명환 부회장 사회로 열린 회무처리는 회원점명, 사업 및 재정보고가 있었다. 이어 임원선거를 통해 임승래 장로(크리스천타임즈 발행인)를 20대 세계기독교연립회 회장에 추대했다.

임승래 신임회장은 "우리들이 하는 일에 크리스천이란 이름이 붙는다. 크리스천이란 것이 무엇일까? 어려운 길을 가기위해 부귀영화와 명예 버려야 한다. 어떤 때는 터무니없는 핍박을 받을 때가 있다. 그것 다 참고 가는 것이 크리스천"이라 말하며 "전임회장단들이 하던 사업을 전수 받고 코치 받아 본 협회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활동무대를 넓혀가겠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관 6조 회원가입에 임박해서 신임회원으로 시카고 크리스천저널이 단체회원으로, 김창호 목사, 정요한 목사가 개인회원으로 가입했다. 다음은 이날 선출된 회장단 명단이다.

△회장: 임승래 장로(크리스천타임즈 발행인) △부회장: 조명환 목사(크리스천위클리 발행인), 백준용 목사(크리스천헤럴드 총괄사장), 이영선 목사(미주복음방송 사장) △서기: 이성자 전도사(미주크리스천신문 지사장) △회계서인실(크리스천투데이 사장).

한편 이날 회무처리 전에 시작된 1부 예배 시간에 신앙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이 함께 열렸다. 이날 시상식은 지난 10월 25일 언론협 임원들과 심사위원(백승철 목사, 전인철 목사)들이 함께 모임을 갖고 최종 심사에 오른 10편의 작품들을 리뷰하며 선정했다.

이날 우수상을 받은 박보라 집사(시애틀 지구촌교회)는 "기독문인협회 워싱턴지부에서 활동하며 매일 목상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글로 써왔다"며 "신앙도서 공모전에 참여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참가했는데 좋은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에 로고스선교회(대표 박도원 목사)와 함께 후원한 기독교서점협회 전인철 회장은 "신앙독후감 공모전은 저희 기독교서점협회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 세계기독교연립회에서 하게 돼 감사드린다"며 "이번 공모전이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돼 많은 분들이 책을 통해 은혜 받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기독교계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 수상자부터는 에피포도 예술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예배는 이성자 전도사가 기도했으며 분회 창설회장인 이경근 목사(유니온교회 원로)가 '지붕위에서 전파하라' (눅12:2-3)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다음은 제3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수상자 명단이다.

△우수상: 박보라 집사(시애틀형제교회) △장려상: 이정남 성도(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임보라 사모(LA 동양선교회), 김진해 장로(브라질 쌍파울로연합교회). (박준호 기자)

Large advertisement for '해외교회' (Overseas Church) featuring a grid of church listings with names, addresses, and contact information. The header includes the text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교회'.

오바마케어 벌금 면제기관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 기독의료상조회 —

www.cmmlogos.org

기독의료상조회는,

- IRS Section 501(c)(3)로 승인된 비영리 기관인 로고스 선교회 산하에서
- 오바마케어 벌금 면제가 되는 Health Care Sharing Ministry로
-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의료비 나눔 사역을 4만여 회원들이 함께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Gold Plus	Gold	Silver	Bronze
1인	\$175	\$135	\$80	\$40
2인	\$325	\$260	\$160	\$80
3인 이상	\$425	\$385	\$240	\$120
본인부담금(1인당)	\$500/Year	\$500/Incident	\$1,000/Incident	\$5,000/Incident
지원금/질병당	\$150,000	\$150,000	\$150,000	\$150,000

※ 65세 이상 Medicare A & B 소지자를 위한 Gold Medi-I, 65세 이상 기존 회원을 위한 Gold Medi-II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cmmlogos.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습적 음주, 흡연, 마약, 비정상 성생활 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 기존회원이라도 상기조건외 실적시에는 의료비 지원이 안되며, 회원자격이 상실됩니다.
- 의사나 병원을 지정, 제한하지 않습니다.
-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및 선교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연중 수시로 회원 가입이 가능하며 한국어 서비스를 해 드립니다.
- 2002년 이래 회비를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 가입 이전부터 있는 증상이나 치료중에 있는 질병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가입 후 90일 이후 발생된 질병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 가입 후 300일 이후의 출산비가 지원됩니다.

Established 1996
 **기독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대표전화 **(773) 777-8889**

